

혼돈의 시기를 지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상황과 이념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21년 9월 25일 (토) 제 1843호

L.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 백인크리스천 정치참여, 선교대명령 위태롭게!

## CT, 백인크리스천 당파성에 따른 퓨리서치 설문조사 해석과 예측 보도

“복음주의자=백인 크리스천?” 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4년 동안 고도로 긴장된 양극화에도 불구하고 그를 싫어한 백인 복음주의자나 유색인종 복음주의자가 복음주의에서 대량 탈출은 없었다.

퓨리서치가 지난 15일에 발표된 분석(More White Americans adopted than shed evangelical label during Trump presidency, especially his supporters)에 따르면 2016년에서 2020년 사이에 자신을 복음주의자라고 부르지 않는 미국인보다 더 많은 미국인이 거듭난 개신교 또는 복음주의 개신교로 식별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증가는 거의 전적으로 백인 트럼프 지지자들에서 나왔다.

“복음주의는 비방자들의 열렬한 예측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되고 있는 것은 더 많은 대화를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휘트대학 빌리그래햄센터의 에드 스테처는 말한다. “현재 상당수의 백인 트럼프 지지자들이 복음주의자이거나 거듭났다는 사실에는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모르고 상관관계가 항상 인과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 더 연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 백인이 아닌 응답자는 트럼프의 집권기간 동안 복음주의라는 꼬리표를 채택할 가능성만큼 복음주의적 꼬리표를 삭제할 가능성이 있었다. 2016년과 2020년에 약 4분의 1이 거듭난 또는 복음주의자로 확인됐다.

백인 복음주의자들 사이에서 최근 몇 년 동안 트럼프 지지자들에 비해 트럼프 반대자들이 복음주의적 정체성을 약간 더 많이 포기했지만 그 차이는 오차범위 내에 있었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고 퓨 리서치는 밝혔다.

역사가 토마스 키드(Thomas

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스스로를 복음주의자라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 중 거의 6분의 1이 2020년까지 복음주의자임을 밝히기 시작했다.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은 백인 미국인 중 단 1%만이 같은 영역으로 입성했다.

이 발견은 복음주의의 미래와 그 위상이나 정체성이 과연 미국에서 좁아지고 있는 정치적인 영역으로까지 확대되는 영향에 대해서 이미 시작된 논의를 더욱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크리스천리티투데이(CT)는 지적한다(“Political Evangelicals”? More Trump Supporters Adopt the Label: Surveys show evangelical identity holding steady over the last presidency, but with more complicated partisan connotations for the church).

고 주장했다. 키드는 “교회가 성경의 권위, 영적 개종의 필요성, 일상 생활에서 느끼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역사적 헌신을 언급한다면 교회가 계속해서 자신을 ‘복음주의적’이라고 표현하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특히 목회자들은 그들이 복음주의에 부여하는 의미가 교회의 일부 사람들의 의미와 같지 않을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단순히 복음주의라는 용어를 정의되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함으로써 자신이 사실상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의 지지자라는 사실을 자신의 교회에 부주의하게 알리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복음주의자들과 복음주의 단체들이 그들의 움직임을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신학적 용어로 보고 있지만 자신의 당파적 참여에 따른 정체성으로 복음주의자라고 간주하는 크리스천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키드는 지적한다.

(3면으로 계속)



# ‘디스토피아’ vs ‘유토피아’

## 미디어, 멕시코 티후아나 아마존 물류센터 찬반논쟁 소개

멕시코 티후아나에 있는 아마존의 거대한 물류센터는 인근 빈민촌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글로벌 기업 중 한 곳이 하루 벌어들여 하루 먹고 살기 바쁜 주민들과 이웃이 됐다는 역설에 네티즌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트위터 게시판에는 2100만 달러가 투입된 이 시설을 “디스토피아”라 부르는 글들이 달렸다. 어떤 이들은 이 사진이야말로 “자본주의의 사악성을 보여주는 축소판”이라고 했다(Amazon in Tijuana: the controversy over the photos of a gigantic company warehouse built in the middle of a slum in Mexico).

논쟁의 시작은 사진기자 오마르 마르티네스(41)가 찍어 입소문을 타게 된 어느 항공사진이었다.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있는 티후아나 출신인 마르티네스는 멕시코의 보도사진 대행사인 쿠아르토 스쿠로에 소속된 기자다.

“제 고향에 존재하는 극명한 격차를 보여주기 위해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 사진이 논쟁을 일으키게 돼 기쁩니다.”

그는 문제의 사진들을 촬영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전했다. 소외계층이 사는 해당 지역은 이미 우범

지대가 됐기 때문이다. 그는 결국 멀리서 드론으로 촬영에 성공했다. “아마존 물류센터가 위치한 곳은 조직폭력배와 마약상들이 몰려 있는 하수관 옆입니다. 전혀 안전한 곳이 아니었죠.”

미국 산타바바라에 위치한 캘리포니아대학 글로벌학과의 차메인 주아 조교수는 트위터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티후아나 물류센터는 지역경제를 위해 그곳에 세워진 게 아닙니다.”

(3면으로 계속)



시론 류영렬 목사



푸른초장 박근욱 목사



복음적인 영혼의 분열시대.. 16면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퍼스온라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 / 기독교서적 / 일반서적 / 베스트셀러 / 성구 / 성화 액자 / 가운 / 교회용품 / 영문성경 / 영문기독서적  
**교회 · 사업체 · 달력 · 기념패전문**  
뉴욕) Tel. 718)762-0011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뉴저지) Tel.201)346-0030 5 Brin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www.bestsaver.us 917-863-0301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전품목 50% 할인판매**  
www.jcbook.com | jc@j19.com | j19@j19.com  
323-737-7699, 800-669-0451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영적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사**  
교회 음향, 동시통역기, 성가곡집 주문 제작, 타월, 선물 주문 제작  
TEL. 714.530.2211 | Fax. 714-530-8080 | biblestore@gmail.com  
9838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 정기총회

존경하는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 소속 목사님들께 주님의 크신 은혜가 온 교회와 가정 위에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는 정기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일시: 2021년 9월 30일(목) 오후 7시  
장소: 뉴저지연합교회(고한승 목사 시무) 147 Tenafly Rd Englewood, NJ 07631  
연락처: 총무 김동권 목사 (201)394-7821

### 임원소개

#### 임원

회장: 이정환 목사  
부회장: 고한승 목사  
부회장: 육귀철 장로  
총무: 김동권 목사  
사무서기: 최재형 목사  
기록서기: 양혜진 목사  
사무회계: 김건일 장로  
기록회계: 최다니엘 사관

#### 분과위원회

목회위원회: 김종국 목사  
선교위원회: 박인갑 목사  
친교위원회: 신철용 목사  
음악위원회: 김중윤 목사  
홍보위원회: 육민호 목사  
복지위원회: 최준호 목사  
청소년·청년위원회: 홍인석 목사  
어린이위원회: 조희창 목사

#### 강사

송호민 목사, 전경엽 장로

#### 특별위원회

회칙위원회: 이의철 목사  
선거관리위원회: 장동신 목사  
공중위원회: 양준길 목사  
이단대책위원회: 윤명호 목사  
건축위원회: 이준성 장로

#### 협동 총무

AG 김영훈 목사  
FG 백형두 목사  
UMC 장학범 목사  
KMC 이선구 목사  
PCUSA 우종현 목사  
UPCA 정참수 목사  
KAPC 임동렬 목사  
KACA 박성돈 목사  
PCA 오범준 목사  
RCA 원도연 목사  
CRC 김은범 목사  
C&MA 이재두 목사  
예성 박순탁 목사  
기성 정민영 목사  
구세군 최다니엘 사관  
SBS 송재현 목사

#### 이사회

이사장: 이춘섭 장로  
강영안 장로, 고한승 목사, 김건일 장로, 김영동 장로, 김종국 목사, 박경환 권사, 박영규 권사, 배광수 장로, 손주영 권사, 손한익 집사, 안성주 장로, 오종민 목사, 육귀철 장로, 이문홍 장로, 이병준 목사, 이애경 권사, 이재희 권사, 이정환 목사, 이호성 집사, 정대기 목사, 정일권 장로, 황찬성 장로



제 34회기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 회장 이정환 목사



발행인 칼럼

별이 지다



김성국 목사 (권장로교회 담임)

도시에서는 자주 보기 힘들다. 그래도 간혹 본다. 유성(流星)이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 별은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한 번 뿐인 삶을 별같이 빛나게 사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 그런 사람들이 이 땅을 떠날 때도 "별이 떨어졌다" 또는 "별이 지다"라고 표현한다. 또 하나의 별이 졌다. 고(故) 조용기 목사님. 다 떨어진 천막에서 다섯 명으로 시작한 목회, 70만 명이 넘는 세계 최대의 교회로 성장시킨 목사님. 숫자보다 더 큰 영향력을 이 땅에 남기시고 주님 품에 안기셨다. 한국교회 1세대 목사님들을 비난하긴 쉬워도 그들처럼 살아내기는 어렵다. 그들의 기도와 믿음, 희생과 열정이 없었다면 오늘의 한국교회 그리고 한국교회가 감당해온 세계선교는 어떻게 되었을까. 50년 친구이셨다는 극동방송의 김장환 목사님께서 천국환송예배 설교를 맡으셨다. 설교 중 이런 말씀을 하셨다. 두 분이 이야기를 나누는 적이 있었다고 한다. "조 목사, 매 주일 수십만 명의 성도들이 앞다투어 성전에 모이는 비결이 무엇이었어?" "김 목사님은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시나요?" "하루 다 합하여 한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 "나는 하루에 기도 5시간씩 합니다." 김장환 목사님은 조 목사님을 "기도대장"이라고 불렀다.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작년 봄에는 필자가 섬기는 교회의 장영춘 목사님이 이 세상을 떠나셨다. 올가을에는 조용기 목사님이 떠나셨다. 두 분만이 아니다. 별처럼 사셨던 여러 1세대 목사님들이 앞서거나 뒤서거나 한 분씩 우리 곁을 떠나고 있다. 아름답고 귀한 별들이 지고 있다. 물론 그들도 약점과 결점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시대를 지혜롭게 분별할 줄 아셨고, 어떻게 성도들을 이끌지를 알고 용기 있게 이끌었던 분들이었다. 그분들은 그 삶을 바쳐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어 놓았고 많은 것들을 새롭게 한 분들이었다. 그들은 실로 영적 거인들이었다. 그런데 영적 거인이라 일컬어지는 이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약한 자들이었다.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지독하게 매달리던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떠난 자리를 누가 대신 할 것인가? 영적 거인의 시대는 끝난 것인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국 정치계에도 큰 인물이 없지 않았다. 그 대상이 꼭 대통령들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아무튼 대통령 선거의 계절이 돌아왔다. 한국에서는 대통령 후보를 뽑기 위해 여야(與野)에서 한창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모두가 "내가 대통령에 가장 적합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그중에 한 시대를 넘어서고 그리고 빠르게 이 갈 정치 거목(巨木)은 누구일까? 정말 정치 거목이 그들 중에 한명이라도 있기는 한가. 서로 치열하고 때때로 비열하게 공격하는 모양새가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상처투성이가 될 것 같다. 한국 사회는 존경하고 따를 큰 인물 지도자를 배출하기에는 너무 그 토양이 척박(瘠薄)해졌다. 그래서 누군가가 세상을 떠날 때 "별이 지다" 라고 말할 정치적인 물이 희귀하다.

시대적 풍조와 환경이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영적 거인을 대망(待望)한다. 낙심하지 않고 정치 거목을 기대(期待)한다. 이전 시대보다 역사의 전진과 변화가 더더욱 필요하기에.

아프간 위기, 9.11사태 20주년이 주는 교훈으로 대처

BBC, '끝나지 않는 테러와의 전쟁' 에서 현명하게 대처하는 대안 제시

지난 20년간 전 세계에서 벌어진 테러와의 싸움이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무엇이 효과가 있었고, 무엇이 그렇지 않았을까. 알카에다를 보호한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에 재집권한 오늘날, 우리는 테러가 일어난 2001년 9월 11일 아침보다 더 현명해졌을까. 9.11이후 BBC는 중동, 아프간, 워싱턴, 관타나모만과 관련된 테러리

즘을 관찰해왔다. 이를 기반으로 테러와의 전쟁에서 대처할 수 있는 5가지 교훈을 말한다. 이는 분쟁 논쟁의 여지가 있고 완전히 종합적이지도 않다. 그러나 설득력이 있다(Afghanistan crisis: Five lessons learned (or not) since 9.11).

1. 중요 기밀은 공유하라

9.11이 발생할 것이라는 단서들은 있었지만 이를 연결해 중요한 정보를 알아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9.11사태까지 몇 달 동안 미국의 주요 정보기관인 연방수사국(FBI)과 중앙정보국(CIA)은 모종의 음모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 국내와 해외 정보요원들은 서로 간 경쟁의식 때문에 자신들이 입수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다. 그 후 9.11위원회 보고서는 정보기관의 실수를 면밀히 추적했고 몇 가지 주요한 점들이 개선됐다.

BBC는 2006년 미 버지니아주에 있는 국가테러대책센터(NCTC)를 방문해 17개의 미국 기관이 어떻게 매일 정보를 수집하는지 알 수 있었다.

모 테러 음모가 파키스탄 정부의 도움으로 적발됐다. 하지만 그 후 영국은 2017년 맨체스터 폭탄 테러 등 여러 차례의 공격을 받았다. 즉, 좋은 정보를 수집하고 공

작전을 크게 방해했다. 많은 미국과 영국 특수부대는 알카에다 공작원을 색출하고 아프간의 협력자들과 함께 탈레반 저항세력(폭도들)의 배후를 잡는 작전을 훌륭하게 수

행(탈레반에 반대하는 아프간인들)과 협력했다.

그러나 임무가 끝나고 몇 년 동안 북부동맹은 약화해 여러 파벌로 흩어졌다. 그 기간에 대다수 아프간인들의 삶은 크게 개선됐지만 아프간의 "국가건립" 명목으로 투자된 수십억 달러는 부패와 쓸데없는 낭비에 쓰이고 말았다.

3. 파트너를 신중하게 선택하라

영국은 2003년 이라크 침공 당시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미국과 협력했다. 이로써 영국은 미국이 이라크 점령기간에 내린 대부분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하위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라크에서는 이라크 군대를 해산하거나 바트당(서구 세력



5가지 교훈: ①중요기밀 공유 ②임무 정의하고 집중 ③파트너선택 신중하게 ④도덕적 우위 유지 ⑤출구전략 세우기

영국은 2003년 합동테러리듬분석센터(JTAC)라는 융합센터를 설립했다.

런던 템스강 제방 부근에 위치한 이 센터에는 MI5, MI6, 국방, 교통, 보건, 기타 분야의 전문가들 수십 명이 모여 국내외 발생하는 테러 위협을 지속 평가하고 그 결과물을 제공한다.

하지만 JTAC의 시스템은 완벽하지 않다. 센터 설립 2년 후인 2005년, 알카에다는 영국인인 자폭 테러범들을 이용해 50명 이상을 살해한 런던 7.7 폭탄 테러를 저질렀다.

이듬해는 비행 중이던 여객기 여러 대를 폭파하려 한 대규

유해도 작업의 우선순위를 잘못 구성하면 테러를 막지 못할 수 있다.

2015년 11월 발생한 파리 바타클랑 테러는 130명의 사망자를 냈고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사건도 유럽 당국이 제때 해외로 정보를 공유하지 못해 발생한 측면이 있다.

2. 임무를 정의하고 집중하라

탈레반이 재집권하게 된 이유 가운데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이 있다. 2003년 미국이 주도한 이라크 침공이다. 이 불운의 결정은 아프간에서 진행 중이던

행해내고 있었지만 이를 중단하고 철수한 후 이라크로 파병됐다.

그 결과 탈레반과 그 협력자들은 다시 뭉쳐 더 강한 세력으로 되돌아왔다. BBC가 2003년 11월 아프간 동부 파키카주에 있는 미국 보병 전초기지를 취재했을 때 미국인들은 이미 그들의 임무를 "잊혀진 작전"이라고 표현했다.

아프간에서의 원래 임무가 명확했고 제대로 수행됐다는 사실은 잊혀지기 쉽다. 탈레반 정권이 가해자들의 인도를 거부하자, 미국은 탈레반과 알카에다를 몰아내기 위해 북부동

맹(탈레반에 반대하는 아프간인들)의 모든 당원들을 정부 역할에서 제외하지 말아달라는 긴급 탄원이 제출됐으나 서방 세력은 이를 무시 또는 기각했다. 그 결과, 실적으로 불만을 품은 이라크 군대, 정보요원들과 극단적인 지하디스트들은 비극적인 동맹을 맺었다. 이 동맹은 향후 Isis가 됐다.

9.11테러 이후 전 세계에 발생한 집단공황은 미국과 영국의 정보기관이 인권을 박해한 일부 중동 정권들과 협력해야 함을 의미했다. 서방 세력에겐 자멸자득이었다.

(4면으로 계속)

Advertisement for Joon Mo Myung, MD, a medical professional in Flushing, NY. Services include various medical consultations and imaging.

Advertisement for Bethesda Dental, a dental clinic in New York, NY. Services include general dentistry, orthodontics, and emergency care.

Advertisement for FAMILI STUDY, a research project by NYU Langone Health. Focuses on food and microbiome longitudinal investigation. Recruitment for participants is open.

Advertisement for the Houston Korean Christian Church. Recruitment for a pastor and church members.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and details about the church's activities.



백인크리스천 정치참여 ...

(1면에서 계속)

여기에 미디어마저도 걸려 지지 않은 상태로 소위 '차이적 복음주의자'들의 정치적 활동만을 부각시키는 편파적 보도행태도 이러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주장하는 것과 정치적으로 지지하는 것 사이에 간극이 생긴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새롭고 특이한 방식으로 이러한 질문을 제기했습니다"라고 시더빌대학의 정치연구센터 소장인 마크 C. 스미스는 새로운 논의를 말한다.

"퓨리서치 연구가 유지되고 다른 데이터 소스에 의해 확인되면 새로운 관점에서 도전 과제를 제시합니다. 복음주의의 종교적 전통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단지 '정치적 복음주의자들'일 가능성이 있는가?"

트럼프는 저명한 남침례교 목사부터 그의 오랜 친구 폴라 화이트 케인과 같이 TBN에서 대중화된 변형 설교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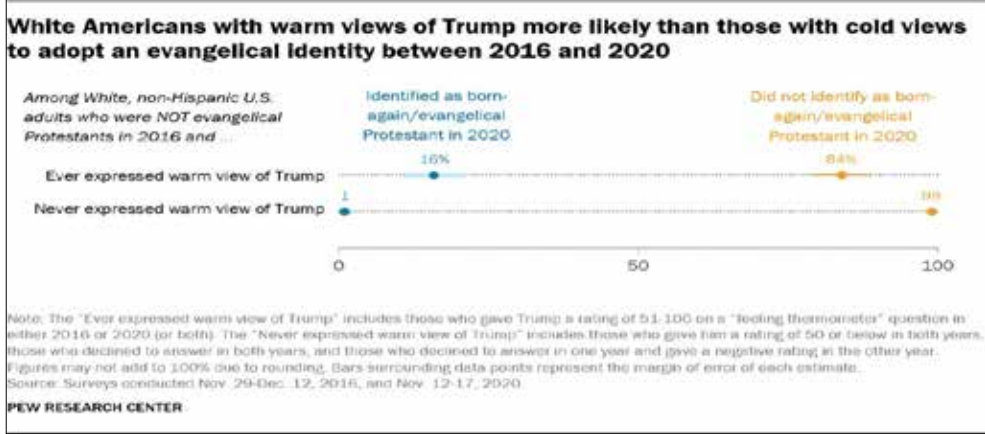
에 이르기까지 수십 명의 복음주의 지도자들의 지지를 받아들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트럼프의 성격을 비난하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그의 행정부가 종교의 자유, 생명보호운동, 양심보호를 옹호한 방법을 찬양했다(그리고 일부 기독교인들은 둘 다 했다).

회조사(General Social Survey)에 따르면 트럼프에 대한 분열과 비종교 미국인의 수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미국 인구의 복음주의적 비율은 10년 동안과 마찬가지로 꾸준히 유지됐다.

시더빌대학의 스미스는 미국에서 복음주의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함축이 불가피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치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신학적으로 무시할 것입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문제를 제시합니다"라고 말했다.

"신교대명령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있지만 우리 문



2016년 선거 후 유권자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클린턴 유권자가 트럼프 유권자보다 탈퇴 가능성이 더 높지만 극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일반사

할 수 있으며 그것이 교회의 사명을 방해한다면 도전이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제 관심사는 이러한 변화로 인해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의 대사로 제시하는 것이

화는 너무 정치화되고 양극화돼 정치적 깃발로 보이는 아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시론

불확실성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의 세 가지 자세



류응열 목사 (와싱턴중앙장로교회)

COVID 19 팬데믹이 가져다 준 새로운 상황이 있다면 '불확실성'(uncertainty)이라는 말이다. 불확실성이란 판단이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적절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를 말한다. 이로 말미암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경제와 삶의 전반에 대한 불확실한 미래를 나타내는 말이다. 막연한 미래를 앞에 두게 되면 결정하는 일도 실천하는 일도 쉽지 않다. 오늘날 상황이 바로 이 불확실성의 시대라 말할 수 있다. 이런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차분하게 목표를 정하지 못한 채 인터넷 서핑에 지나친 시간을 낭비한다는 것이다. 코로나 상황을 반갑게 맞이할 사람은 없지만 신자는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 오늘 같은 팬데믹을 허락하셨다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이 시간을 가장 의미 있게 보내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세 가지 지침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먼 미래를 준비하지 말고 한 주간에 맞는 계획을 세워라. 이번 코로나 사태가 가르쳐 준 교훈은 하루를 살아가는 자체가 특별한 선물이라는 것이다. 매 주마다 누군가 교인의 별세 소식을 주부에 실을 때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 바로 오늘이라는 것을 다시금 되새기곤 한다. 요즘은 포스트코로나시대를 위한 다양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대한 뜻을 묻기 전에 이번 주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할 삶이 어떤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더 실제적이고 유익하다. 장기적 계획은 필요하지만 당장 이번 주에 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하는 것이 1년 후에 멋진 미래를 그리는 것보다 더 좋다.

둘째, 실천적으로 행동에 옮길 수 있는 것을 결정하라. 전쟁의 현장에서 지휘관이 해야 할 일은 지금 이곳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초대교회에 붙어 닦친 팬데믹을 뚫고 부흥의 역사를 이룬 것은 죽음을 불사한 사랑의 실천이었다. 중세 시대 팬데믹이 쓸고 간 세상에 개신교의 불씨를 타오르게 한 것도 진리에 근거한 실천적인 사랑이었다. 팬데믹 이후의 교회와 신앙생활을 위해 다양한 계획을 세울지라도 모든 준비의 핵심과 방향은 실천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이다. 구슬이 세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런 상황에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우리 교회가 실천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시간을 정하고 행동에 옮긴다면 위기의 순간이 의미 있게 다가올 것이다.

셋째, 하나님과 이웃 사랑을 성실하게 실천하라.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팬데믹 사건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일에 집중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었다. 집중해야 할 본질이 무엇이며 내려놓아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찾아 과감하게 결단해야 한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영광을 구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이웃의 기쁨을 위해 자신을 드리는 것, 이 두 가지 계명은 실천할수록 우리 자신과 타인에게 유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다. 교회나 개인의 삶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 두 가지 질문과 연결하면 불확실한 시대에 세상을 밝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실천할 수 있다. 이 땅의 많은 교회가 이번 코로나 상황을 지내면서 다양한 이름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의 교회는 위기에 더욱 빛이 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이웃을 세우는 일은 아무리 신속해도 성급한 일이 아니다.

오늘부터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바로 실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일이라면 당장 실천에 옮겨라. 코로나 상황은 불확실성이라는 위기를 불러오지만 신자에게 이 위기는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신앙적으로 비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코로나의 숲을 지나면서 늘 기도하는 것이 있다. 광야 길을 걸을 때 평소 경험하지 못한 하늘의 만나를 체험하게 하고, 사방이 막혀있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소서. 훗날 오늘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스토리가 있게 하소서.

preachchrist@kcpc.org

'디스토피아' vs. '유토피아'

(1면에서 계속)

이곳에서 멕시코 노동자들을 엄청나게 착취하며 물건을 조립해 해외로 수출합니다."

국경도시 티후아나나 미국 로스앤젤레스 롱비치의 향만 단지 인근에 있다. 거대 유통 자본 아마존 제품의 40%가 이 향만 단지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것이 주아 교수의 설명이다.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되면서 관세 문제로 양국 간 직접 교역은 비싸졌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바로 멕시코"라고 주아 교수는 덧붙였다.

캘리포니아-어바인대학에서 미국과 멕시코 국경 공급망에 대해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스펜서 포티커는 멕시코의 인건비가 미국보다 훨씬 저렴하다고 말한다. 미국 노동자의 시간당 최소 임금은 15달러지만 멕시코 노동자의 경우 2-4달러에 불과하

다는 것이다.

포티커는 티후아나의 아마존 물류센터는 "세계적인 불평등을 상징한다"며 "국경 지역에 물류센터를 짓는 게 추세"라고 지적했다.

지난 4월 로이터통신의 특별 보도에 따르면 멕시코시티 인근 아마존 물류센터 직원들은 법정 근로시간보다 많은 시간을 일하도록 강요받았다. 또한 회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된 직원들에게 퇴사를 강요하거나 이들 중 일부는 해고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아마존은 지난 4월, 일부 배달기사들이 뼈뺀 배송시간을 맞추기 위해 플라스틱 병에 소변을 봐야 했다는 것을 인정했는데, 이는 미국에서 근로조건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티후아나의 칼라 루이스 맥팔랜드 시장은 해당 물류센터가 주민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온라인상에서 제기된 비판을



일축했다. 아마존은 자사가 많은 나라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티후아나의 물류센터는 멕시코에 세운 11번째 시설이라며 다음과 같이 전했다. "아마존은 멕시코

에서 1만5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티후아나나 물류센터에는 직원 250명을 추가했습니다. 아마존은 이들에게 동종업계에 뒤지지 않는 급여를 주고 있으며 전 직원에게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유원정 ■ LA지사장: 이성자

· L.A. Office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 Tel: (323)665-0009(대표) (213)674-7982  
· E-mail: lachpress@gmail.com

· N.Y. Office  
·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 Tel:(718)886-4400(대표)  
· E-mail: ny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New Years Day and April 3, July 10, and Nov 27.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Midwest University는 텍사스 주정부 고등교육국의 인준과 연방정부 인가기관, SEVIS I-20 발행을 인준받아 Dallas, Texas 에 항공 조종사 면장과정, 항공 정비사 면장과정, ESL 과정을 오픈 합니다.

**Midwest University College of International Aviation**

Bachelor of Science in Aviation Management / Flight  
Aviation Management Pilot, Aviation Management Engineer  
M.B.A. Aviation Safety Management  
Ph.D. in Leadership International Aviation Management Leadership

**항공경영학 학위 + FAA Pilot 면장 취득**

문의 : 전화 (636)327 - 4645, 이메일 usa@midwest.edu

**Professional Pilot Certificate Program(FAA)**  
조종사 면장과정 10-12개월 소요 (FAA Certificate)

**Certificate Program**  
항공조종 교관, 항공정비 엔지니어 과정

\* 미국의 타 항공학과에 비교하여 저렴한 수업료 (SEVIS I-20, J-1 Visa)  
\* 자가용, 계기, 상업용 FAA 면장까지 10-12개월이면 취득할 수 있으며, 면장 취득 후 교관과정(2-3개월 취득가능)취득하여 교관으로 활동하여 1000시간 이상 타임빌딩 가능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 (636)327 - 4645 / Fax : (636)327 - 4715  
E-mail : usa@midwest.edu

Dallas Campus: 4849 Spartan Dr., Denton, TX 76207  
Tel : (636)327 - 4645  
E-mail : dallas@midwest.edu

www.midwest.edu



# 목·양·칼·럼



한평우 목사  
(유림목회자세미나연구원 원장)

## 로마의 산책-색깔

커피를 마시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 이태리 여인이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까만 아이의 손을 잡고 길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동양인, 나에게 예사로 보이지 않았습니. 추측하기로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이태리 부인이 아프리카 아이를 입양한 것 같습니다. 이태리에는 한국에서 입양한 아이들도 많습니. 그 아이들은 벌써 4-50대가 되었지만 말입니다. 오래전에 아프리카에 다녀

왔습니다. 아프리카는 모두 검은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사위가 온통 검은 색으로 채색된 것 같았습니다. 길에는 온통 검은 물결이 출렁거렸고 말입니다. 전혀 섞이지 않은 검은 사람들로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거주하는 분의 얘기로는 아프리카에서는 검은 얼굴도 등급이 있다고 합니다. 즉, 완전 검은 얼굴, 조금 덜 검은 얼굴, 그리고 약간 검은 얼굴이라고 합니다. 덜 검은 얼굴

일수록 그 나라에서 가치가 높다고 합니다. 왜 그들은 검은 얼굴로 태어나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검은 얼굴을 자책하며 살아가고, 머리까지 지나친 굴슬이라 스트레스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빗을 가지고 다니며 시간 날 때마다 머리털을 사냥해 빗어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강한 굴슬머리가 피부를 뚫고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나라에서 일생을 살아간다면 모두가 동일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지만 저들은 경제적으로 어렵기에 할 수 있는 대로 유럽으로 건너오려고 합니다. 젊은이들의 로망은 파라다이스로 여기는 유럽으로 건너가는 일이라고 합니다. 마치 60년대 우리 가 미국 가기를 열망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천신만고 끝에 꿈에 그리던 유럽으로 발을 딛는 청년들도 많습니. 많은 돈을 주고, 비밀리에

베를 뒀는데 난파되어 죽는나 해도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아니면 죽음을 무릅쓰고 수천 km를 도보로 걸어서 국경을 넘기도 합니다. 것처럼 부푼 꿈을 가지고 주검을 무릅쓰고 도착한 유럽은 꿈꾸던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선 직장을 구하기가 힘들고, 체류허가도 없기 때문에 늘 불안하기만 합니다. 역전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경찰이 수시로 검문을 하고 증명서를 요구받습니. 특히 중동사람이나 아프리카 사람들은 단골 메뉴처럼 검사의 대상이 됩니다.

미국의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지(sports illustrated)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흑인 선수의 63%가 백인에 비해 낮은 처우를 받고, 77%는 은퇴 후 행정 책임자나 경영층으로 승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소위 성공한 자들로 미국고교 졸업생중 프로그래밍에 밝히는 0.13%에 해당하는 자들인데 말입니다. 언제부터 이 땅에는 이런 색깔로 인한

차별이 시작되었을까요? 오늘 북쪽 비제 자에서 31살 된 나이지리아 여인이 남편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 결혼했는데 말입니다. 60이 넘는 남편은 아내의 버는 돈으로 근근이 살아가면서 매일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부인은 헤어지기를 바랐지만 계속 감시하며 폭행을 가했다고 합니다. 얼굴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당하고 무시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

입양된 아프리카 어린이가 자라면서 부모님과 얼굴색이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얼마나 혼란스러울까 하는 생각으로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성장하면서 찾아오는 정체성의 문제는 간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런 문제를 잘 극복하고 훌륭히 성장하여 입양자가 불란서의 장관까지 된 동족들도 여러 명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반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정신적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 정신 질환자나 자살로 생을 마무리하는 입양아들도 아주 많습니. 이런 사정을 알기에 엄마 손을 붙잡고 친진난만하게 걸어가는 검은 아이가 만나게 될 수많은 난관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험한 세상을 양 부모 밑에서 살아가야 하는 검은 아이의 미래가 쉽지 않습니. 공부하는 것은 학비가 없어 가능하겠지만 취직하고 사회생활하는 이 모든 길이 보통 사람보다는 몇 배가 힘든 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디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훌륭하게 성장하여 귀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에게나 가능성은 항상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그 작은 아이가 머릿속에 남아있습니. 검은 얼굴 때문에 차별 당하고 그때마다 흘리는 반짝이는 눈물이 마음을 적습니. chiesadiroma@daum.net

# 푸/른/초/장

## 박근재 목사

(시나브로교회)



1906년 11월 16일 프랑스 아르데슈라는 지방에서 태어난 '앙리 샤르에르'라는 사람은 한 검사의 실수로 인해 스물다섯이라는 젊은 나이에 사람을 살해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무기징역으로 '기나아'라고 하는 감옥에 수감됩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범인으로 몰아붙인 검사에 대한 복수심과 자유를 위해 탈옥을 수차례 시도하지만 번번이 실패를 거듭하고 거듭한 끝에 드디어 수감생활 10년 만에 탈옥에 성공합니다. 그는 1968년 자신의 체험담을 책으로 출간해서 일약 베스트셀러 작가로 파문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그의 이야기는 '빠빠용'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잘 아는 스티브 맥퀸과 더스틴 호프만 주연의 영화로도 만들어져 흥행에도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다. 그리고는 방주의 문을 손수 열어버리시습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사방이 꽉 막힌 아주 제한적인 방주 속에 가둬 넣으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홍수로부터 피난시키기 위해서라는 것이었습니다(7절). 그러면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신 이유는 또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들의 죄악이 널리 퍼져 있었고 사람들의 생각이나 계획이 모두 약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창6:5-7).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유독 노아 구하려고 하셨을까요?

속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라는 방주 속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방주는 사방이 막혀있기 때문에 트여져 있는 바깥세상보다는 답답하다는 것이고 아울러 방주는 공간적인 제약은 받는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라는 방주 속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에 맞춰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세속적

이다. 부실한 공사지만 한번쯤 모르는 척하고 슬쩍 넘어가면 물질적으로 많은 이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보다 제약이 많습니. 세상 사람들보다 자유롭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 없어서 아주 불편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방주 속에 갇혀서 살아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라는 방주 속에 집어넣고 문을 닫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갑갑하고, 답답한 방주 속에 갇혀 살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는 결국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8:13-19 봅니.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13절에 보니까 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건졌더니' 14절에 보니까 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랐더라',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방주에서? '나왔더라'

세상 사람들의 죄악이 온 세상에 퍼져있고, 그 사람들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들을 홍수로 다 쓸어버리셨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노아는 홍수가 난 후 377일이 지난 후에 갑갑하고 답답했던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물들었던 땅에 퍼부으셨던 죽음의 물을 '건으신 후'에 그리고 '말리신 후'에 노아를 방주에서 '나오게' 하시고 마침내 새 하늘과 새 땅을 그에게 주셨습니.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우리들도 지금은 비록 예수라는 방

과 답답함이 있더라도 그 속에서 감수하고, 수용하고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흑사라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불편하거나 답답하거나 자유롭지 못했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갑갑하고 답답한 일로 불편을 겪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감사하고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았던 여러분은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할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사셨기 때문입니다.

이니면 흑사라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런 불편 없이, 아주 편하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편안하게 마음대로 살아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라는 방주 속에 꼭 들어가십시오! 왜냐하면 예수 방주 안의 삶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할 진정한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물고기가 어항 속이 갑갑하고 답답하다고 어항 밖으로 튀어나오게 되면 잠시 동안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겠지만 결국엔 파드득대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라는 방주 속이 갑갑하고 답답하다고 나오게 되면, 세상의 자유 속에 잠깐 동안은 몸부림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 갇힌 자유가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유인 것을 명심하십시오. 예수 안에 갇혀서 얻는 자유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만끽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유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십시오.

지금은 설령 갑갑하고 불편하더라도 참고 극복하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열어 주셔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살게 하실 미래의 그날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힘차게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mission4jsc@gmail.com

# 갇힌 자의 진정한 자유

## 창세기 7장 1-16절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창6:8).

그러니까 이런 맥락으로 보자면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있는 이 세상도 그때처럼 사람의 죄악이 너무나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살면서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노아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임엔 틀림이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우리들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라는 방주

인 기준과는 다르게 거룩하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보다 답답하고 갑갑하고 불편하게 산다는 말입니다.

즉,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좋은 대로, 자기들 원하는 대로 멋대로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이나 방법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정당치 못한 방법을 이용하면 사업허가를 빨리 받을 수 있더라도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방법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정당한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

(13)육백일년 정월 곧 그 달 일일에 지면에 물이 걷힌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 즉 지면에 물이 건졌더니 (14)이월 이십칠일에 땅이 말랐더라 (15)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16)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자부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17)너와 함께 한 모든 육육 있는 생물 곧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라 하시매 (18)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자부들과 함께 나왔고 (19)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주 속에 갇혀 살지만 물을 걷으시고, 땅을 마르게 하시고, 노아를 방주 속에서 나오게 하셔서 그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십니다.

비록 방주 속에 갇혀서 살지만 그래도 우리들이 품을 수 있는 복과 소망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비록 자유로워 방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더라도 예수라는 방주 속에 갇혀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사는 동안에는 불편함

## 아프간 위기, 9.11사태...

(2면에서 계속)

그 사례로 2011년 리비아에서 무아마르 알 카다피 대령의 폭압 정권이 전복된 후 언론인들은 한 M16 고위 장교가 곧 체포와 고문을 당할 이슬람 반체제 인사의 인도에 관해 리비아군 간부에게 쓴 편지를 입수했다.

오늘날 폭력적 지하디즘은

통제되지 않거나 통제가 부실한 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활발하게 재개되는 한편, 서방 세력이 정확히 누구와 협력해야 하는지에 문제를 제기한다.

### 4. 인권을 존중하지 않으면 도덕적 우위를 잃는다

중동 사람들은 BBC에게 몇 번이고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미국의 외교정책을 좋아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미국의 법치는 늘 존중했다. 포로들을 판타나모만 수용소에 보내기 전

까지는."

미국은 "전장에서" 포상금을 받고 팔린 일부 무고한 민간인들을 포함해 용의자들을 체포한 다음, 그들에게 기저귀, 고글, 귀마개를 씌워 쿠바 판타나모만에 있는 미 해군 구치소로 이송했다. 이송 과정과 그 후 수용소에서 벌어진 학대는 미국과 서방의 명성에 타격을 입혔다.

재판 없는 구공은 중동의 독재국가에서나 생기는 일이었다. 아랍인들은 미국도 그렇게 할 것이라곤 생각지 않았다.

테러 용의자들이 감쪽같이 사라진 CIA의 블랙사이트(포로를 감금하는 비밀 군사시설)에서 "한층 강화된 심문"과 물고문, 그 외 학대실상이 폭로되면서 상황은 더 악화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를 중단했지만 미국의 명예는 이미 손상된 후였다.

### 5. 출구 전략을 세워라

9.11테러 이전, 서방 세력의 중동개입은 비교적 빠르고 간단했다. 시에라리온 내전, 코소

보 전쟁, 심지어 1991년 '사막의 폭풍작전'이란 이름으로 치른 걸프전도 모두 유한한 결말이었다.

그러나 미국이 주도한 아프간 침공과 이라크 침공은 일명 "영원한 전쟁"을 일으켰다. 미국이 각국을 침공한 2001년과 2003년, 미군이 20년 후에도 주둔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간단히 말하면 서방 세력은 자신들이 어떤 상황에 놓일지 알지 못했고 현실적인 출구전략도 없었다.

서방 세력이 2001년 아프간

에서 탈레반과 알카에다를 몰아내지 않았다면 분명 아프간으로부터 더 많은 공격이 이어졌을 것이다. 아프간의 테러 임무가 실패하진 않았지만 국가건립은 완료되지 않았다.

그리고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억할 영원한 이미지는 서방 세력이 포기하다시피한 아프간을 USAF C17 수송기가 떠나면서 이를 뒤쫓아 달려가는 아프간인들의 절박한 모습이다.



#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 작은 커피 한잔의 힘은 어디까지 갈 수 있나? [2] 스타벅스는 그냥 커피 회사인가? 스타벅스 보이콧 하는 이유!

향긋한 커피 한두 잔을 산 “순수한 내 돈”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그저 아침에 잠을 깨기 위해 마시는 스타벅스 커피 한잔의 순수함이 얼마나 우리 자녀들의 미래와 국가에까지 과연 해를 끼칠 수 있을까요?

지난 회에 이어서 스타벅스사가 직접 자신들의 “Starbucks News”에 올리고 자랑스러워하는 그들의 “동성애 전반적 ‘성향’ 포용(LGBTQ+ Inclusion History)역사 연대기”를 공유합니다.

그와 함께 스타벅스 커피와 생산(product)에 들어가는 여러분의 순수한 돈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위해하고 우리 자녀들을 역차별 시키기 위해 뛰고 있는 수백 개의 운동권들과 단체들을 키우고 일으키는데 사용됨을 알려드리며 여러분이 스스로 계속 스타벅스를 지지해야 할지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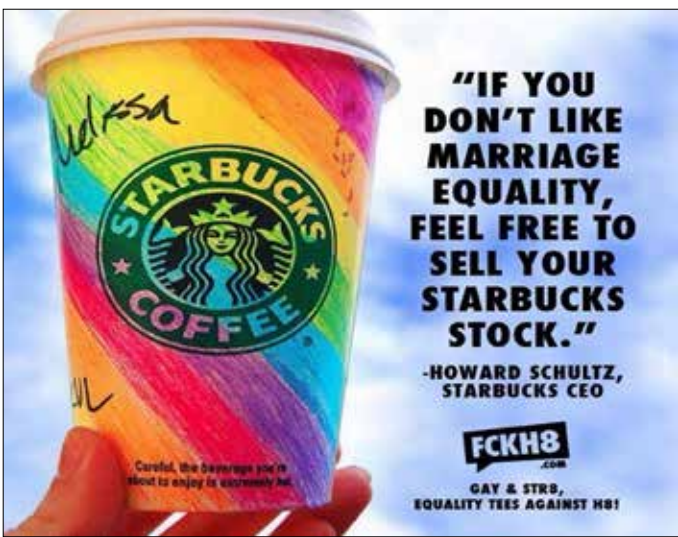
3. 뉴저지 주의 스타벅스 전 직원이며 바리스타인 크리스천 여성이 LGBTQ 동성애 셔츠를 입는 것이 신앙인으로 거북하다고 안 입었는데, 결국 스타벅스 회사의 가치관에 어긋난 행동들을 했다는 ‘정확하지 않은’ 이유들로 해고당함. 스타벅스 사는 이 여성이 해고된 것이 LGBT Pride shirt를 안 입어서 해고한 것이라는 것을 부인했지만 정확한 설명을 기피한 채 스타벅스 회사가 지향하는 ‘모든 성향을 포용하는’ 기업의 가치관에 어긋난 행동들이 있었다고만 함.

4. 스타벅스와 레이디 가가의 Born This Way Foundation 재단이 함께 모여 LGBTQ 공동체를 위해 세상을 더 (동성애자들에게) 동정적이고 환영받는 곳으로 만드는 시도를 함. ‘금지 달(Pride Month -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동안 스타벅스 재단은 더 (동성애

자들에게) 친절하고 용감한 세계를 만든다는 명목으로 Born This Way에 최대 25만 달러의 기부금을 모음.

5. LGBTQ Self-ID-새 직원과 현 직원들이 미국에서는 보통 “장애, 난민, 베테랑 및 군인 배우자”들이 갖고 있는 신분증과 유사한 다른 식별 정보와 마찬가지로 LGBTQ로 회사와 자체 식별을 선택하도록 할 수 있게 함.

6. Advocating for Civil



Rights Protection bills 법적 참견:

스타벅스는 LGBTQ의 권리를 지원하기 위해 200여 개 기업과 연대하여 대법원에 공동 법적 의견서 제출. 의견서의 내용은 기존 연방 민권법이 고용에서 주택, 의료 및 교육에 있어서 LGBTQ를 어떤 차별이든 확대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 이 의견서 제출을 위해 Human Rights Campaign, Lambda Legal, Out & Equal, Out Leadership, and Freedom for All Americans 등의 인권캠페인의 비즈니스 연합(Human Rights Campaign's Business Coalition)에 가입.

참고로, 이 스타벅스가 연합한 이 단체들은 현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내놓은 “평등법안-Equality Act(포

괄적 동성애 확장보호 평등법안 Comprehensive LGBTQ+ Equality Act)”의 내용들을 작성한 단체들이 대부분임.

2018년

1. 스타벅스의 본사가 있는 시애틀에서 스타벅스 회사와 회사 파트너들이 첫 프라이드 퍼레이드를 벌인지 20년이 지난 후 이제는 수백 명의 Starbucks Pride Alliance 파트너들, 친구, 가족들까지도 런던(위)과 전 세계에서 프라이드 행사에 참가하고 있음.

2016년

1. 플로리다 올랜도에서 동성애들의 클럽으로 알려진 “

펠스 나이트클럽” 총격 사건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가족들을 돕기 위해 5만 달러를 기부.

2. 200여 명의 다른 재계 지도자들과 연대하여 LGBTQ 커뮤니티에 대한 동등한 대우를 촉구하는 정책/법안들 지지

2015년

1. “Say my name”-트랜스젠더 직원들을 위하여 직원이 원하는 자기인식(self-identification)을 돕는 시스템을 업데이트하여 트랜스젠더들이 원하는 명칭이나 성 정체성이나 표현과 일치하는 시스템을 만들.

2. 시애틀 경찰국과 파트너십을 가지고 “SAFE PLACE-안전장소” 프로그램을 시애틀의 스타벅스 매장으로 확장하여 동성애를 향한 범죄 및 차별을 없애기 위해 2,000개 이상의 매장 파트너가 시애틀 경찰들의 안전장소 교육을 받고 100개 참여 기업소유매장을 식별하도록 함.

3. 오바마 전 대통령의 결혼 평등안(동성결혼 합법화)가 되던 2015년 초에 스타벅스는 이 동성결혼 합법화에 찬성하는 표현으로 The People's Brief에 직접 서명까지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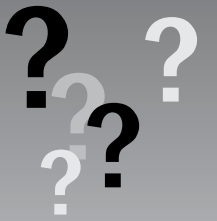
2014년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기 1년 전부터 스타벅스사는 시애틀 스타벅스 본사 꼭대기에 동성애 프라이드 깃발을 게양!

스타벅스의 전 법률 고문이자 현 대표 중 한명인 Lucy Helm은 “모든 사람들의 다양성을 인정과 포용에 대한 우리의 공작 입장을 고려할 때 이러한 이슈를 축하하는 깃발을 올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며, “열린, 생각과 포용, 전향적인 사고(forward-thinking)는 스타벅스가 존재하는 핵심 이유”라고 함.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교회 / (310) 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카톨릭에서 영세를 받은 사람이 교회의 신자가 되면 다시 세례를 받아야 하나요? 목사님들마다 의견이 다른데 알고 싶습니다.  
- 시카고에서 김 목사

A: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세례는 예수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고 죄사함의 표시이기도 하지만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구원의 은총에 대한 약속을 받고 고백하는 은혜 계약에 인침을 받는 표입니다. 따라서 세례의 효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에 근거하며 구원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유지됩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막14:16).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총회장: 백남선, 합동)는 제99회 총회에서 앞으로 가톨릭에서 받은 영세를 세례로 인정하지 않기로 결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예장합동 소속 교회들은 가톨릭교회에서 영세를 받고 개신교회로 옮겨온 신자들에게 새롭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은 제가 볼 때 신학부의 깊은 심의 없이 정치부에서 다루어 결정했는데 문제가 있고 재세례와 논쟁이 일어난 수밖에 없는 신학적 문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신총회의 신학 위원장을 했던 신민범 목사는 “세례를 집행한 사람이 어느 교단에 속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카톨릭 역시 삼위일체의 이름으

### 교단마다 다르며 세례 효과에 대해서 4가지 견해 있어

로 영세를 주기 때문에 그 효력이 유효하다”는 입장을 주장했습니다. 예장 통합총회(총회장: 정영택)는 2004년에 열린 제89회 총회에서 “가톨릭 영세교인에 대해 세례를 다시 줄 필요 없이 입교만 하면 된다”고 결의했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교단이 가톨릭의 영세를 그대로 인정하고 있으며, 간단한 입교절차로 개신교 신자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례의 효과에 관해서는 네 가지 주장이 소개됩니다. 첫째가 인효론입니다. 세례 효과는 세례를 베푸는 자의 신앙과 덕행 즉 행위자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키프리안은 교회를 분열시킨 자들의 세례는 효과가 없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노바티안과 도나토스는 배교자를 수용한 기록하지 않은 카톨릭교회에서 받은 세례는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둘째가 사효론입니다. 세례는 집행자가 베푸는 것이 아니므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집행된 성사는 언제나 정당하다는 주장입니다. 스테판과 밀키아데스는 세례 효과는 행하여진 행위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어거스틴은 베드로의 세례나 가롯유다의 세례나 모두 동등하고 정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사효론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신효론입니다. 초기의 루터와 칼빈은 가톨릭교회의 사효론을 비판하고 칭의론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받은 세례만이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신효론은 종교개혁 시대의 재세례 파에 의해 극단적으로 주장되었으며 믿음의 고백이 불가능한 유아 세례 효과 여부에 관한 논쟁으로 발전하였습니다.

넷째로 은효론입니다 후기의 루터는 세례를 받는 사람의 신앙에 근거시키는 신효론은 세례를 세례 주는 사람의 신앙에 근거시키는 인효론과 마찬가지로 정당치 않으며 세례의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으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은효론에 따르면 가톨릭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던 분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약속을 굳게 믿고 그 믿음을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다면 정통교회에 들어와서도 다시 재세례를 받아야 할 신학적인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 하나님의 인을 받으라

## 도서안내



- 하나님의구원계획 10권
- 성경도표
- 다니엘, 계시록(상,하)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책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책
- 구약, 신약, 사도행전 DVD
- 다니엘계시록 DVD
- 70이레, 최고의 복, 계 1:7 DVD
- (영어책)구약, 신약, 70이레
- (중국어책)하나님의구원계획 4권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POWER POINT)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POWER POINT)
- 하나님의 구원계획(POWER POINT)



라홍채 목사

## 세미나 안내

1. 하나님의 인을 받으라
2. 70이레
3. 하나님의 구원 계획 세미나

하나님의 구원계획 성경공부를 인도하실 사역자들은 소정의 교육(7시간)후 POWER POINT와 모든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뉴욕제자들과교회:(917)588-2934 / (917)968-1024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 목회와 선교

### 백운영 목사

(필라델피아 영생장로교회)



## 선교의 출구 전략

아프가니스탄의 사태가 온 세계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지속된 탈레반과의 전쟁은 그곳에 주둔하던 미국 군대의 발빠기름을 내렸습니니다. 그리고는 자

국을 탈출하려는 아프간 국민들의 모습은 혼돈과 아픔 자체입니다. 지난 20년간 미국과 동맹군이 아프가니스탄 재건을 위해 서 퍼부는 재정은 상상을 초

월하고 피해자 규모도 엄청날 것입니다. 향후 더 정확한 통계지수가 나오면 미국이 어떤 전쟁을 했는가에 대한 평가가 정확하게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밭 빠진 독에 물붓기로 퍼붓던 돈이 아무런 변화도 주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20년간 끌어온 전쟁은 이미 오바마 행정부가 출구 전략을 내놓았고 트럼프 대통령 때 철군하며 바이든 대통령은 국익을 위한 결단이라고 항변하며 그것을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저는 이 사태를 보면서 복음 사역에도 시사하는 것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의 전쟁 의도는 친미 정권수립에 있었지만 미국에 빌붙어 풍족한 생활을 즐겼던 아프간 지도자들은 이미 돈의 맛에 길들여져서 자립할 계획이나 의지

도 없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나라가 위태해지자 국민을 버리고 가장먼저 도망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선교사역에서도 이런 일들이 서구선교에 의해서 그리고 그것을 답습하는 한국선교에서도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교단체는 선교훈련을 할 때 선교사 훈련생들에게 출구 전략을 세우게 합니다. 선교사 언제까지나 그 지역에 머물 수는 없고 가장 시급한 것이 현지인 지도력 개발과 사역이 양이기 때문입니다. 옛날처럼 선교지에서 뼈를 묻으라는 말은 시대에 뒤떨어진 말입니다.

선교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현지 지도력을 세웠는가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에게는 현지에서 재정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가장 위험한

사역방식입니다. 선교사가 홀로 모금해서 현지에 건물을 세우거나 돈으로 현지 사역자에게 월급 주면서 사역하게 할 때는 선교사가 떠나면 무너지는 사역구조가 됩니다. 현지인 서구선교에 의해서 그리고 그것을 답습하는 한국선교에서도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교사역에서 오랫동안 남는 것은 건강한 현지 지도력을 세우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일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는 선교사든 현지인이든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면서 같이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가치를 공유할

때 자연스런 제자훈련이 이뤄 집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키워낸 제자는 선교사와 상관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고 오히려 선교사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그들에게 사역을 물려주어도 큰 기쁨이 있습니다.

선교사들의 가장 큰 기쁨은 나로 인하여 세워진 제자가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되어 크게 쓰임 받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든, 선교사역이든, 정부 수립이든, 사람 키우는 일은 가장 중요한 핵심가치가 되어서 궁극적으로 자립하여 건강하게 일을 진행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제자를 키우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집중하는 사역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gypaek@hotmail.com

# 인터넷 뉴스

## Internet News

### 美 복음주의루터회, 사상 첫 트랜스젠더 주교 취임

미국 복음주의 루터회(The Evangelical Lutheran Church in America, ELCA) 메간 로리 목사가 논란 속에 트랜스젠더로서는 교단 역사상 최초로 주교직에 공식 취임했다.



로리 목사는 앞으로 6년 동안 캘리포니아에 본부를 둔 ECLA 시에라 피시픽 시노드(Synod)를 이끌며, 북부 캘리포니아와 북부 네바다의 성도 약 200명을 감독하게 된다. 로리 목사는 평소에도 성별을 지칭하는 용어(He, She) 대신 '그들(they)과 같은 성중립적 용어를 공개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로리 목사는 지난 5월 온라인으로 진행된 시노드 회의 5차 투표에서 209표를 얻어, 207표를 얻은 캘리포니아 버클리 출신 제프 R. 존슨 목사를 제치고 주교에 선출됐다. 그녀의 임직예배는 9월 11일 캘리포니아 월넛 크릭에 있는 매튜루터교회에서 진행됐다.

2명의 자녀를 둔 로리 주교는 성명을 통해 "북캘리포니아와 네바다에 위치한 다양한 루터교 공동체가 역사적인 사역을 앞두고 기도하며 신중한 투표를 하지 않았다면, 내가 새로운 역할에 발을 들여놓기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나의 취임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심을 믿을 때 모든 것이 가능함을 기념하게 될 것"이라며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이 사랑하는 것들을 사랑하겠다"고 약속했다.

로리 목사는 과거 샌프란시스코 그레이스루터교회에서 목회했으며, 시 경찰국의 사목 코디네이터(chaplain coordinator)를 역임했다.

로리 목사는 지난 2018년 '젠더 스펙트럼'과의 인터뷰에서 "대학에서 한 캠퍼스 목회자의 딸과 사랑에 빠지면서 성에 관해 개방적이 되었고, 이후의 삶은 정체성을 알아가기 위한 긴 여정이었다"고 했다.

독실한 루터교인이었던 로리 목사는 동성애자로 커밍아웃한 이후 목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당시 로리와 관련이 있던 신도들은 그녀를 지지하지 않았다.

그녀는 "우리 교인들은 원래 그 당시 루터교 정책보다 더 극단적인 사역을 하는 날 지지하지 않았다. 그들은 '메간이 훌륭한 목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녀가 먼저 동성애가 되는 것을 그만두었으면 한다'고 했다"고 회고했다.

그녀는 이후 피시픽루터교신학대학교에 다녔지만, 학교가 자신을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피시픽종교학교로 전학했다. 이후 2005년 신학석사학위를 받고 졸업했다.

그녀는 2010년부터 ECLA가 받아들인 7명의 성소수자 목회자들 중 한 명이다. ECLA는 교인 수 약 330만 명으로 미국의 가장 큰 교파 중 하나로서,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교인들이 진보적인 신학과 정치적 입장 때문에 교단을 떠났다.

### 아프간 무슬림난민 전도하려면...

무슬림 출신 기독교인이 미국에 이주한 아프가니스탄 난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전 세계 온건 무슬림을 위한 교육 단체인 '세계 자원개발 및 교육기구(WORDE)' 회장인 헤

디 미라흐마디(Hedieh Mirahmadi)는 "새로운 아프가니스탄 이웃과 복음 나누기"라는 제목의 칼럼을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게재했다.



미라흐마디는 "무엇보다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가능하면 기독교인들은 가정이나 지역교회에서 오픈하우스를 열어 새로운 난민들을 식사에 초대하고, 미국생활의 기본에 대해 알려줘야한다"면서 "우리는 기독교 우세국이기에 기조를 설명하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녀는 이 모임에 대해 "유일신을 숭배하는 이슬람교와 기독교 사이에 공통점을 발견하는 종교간 행사가 아닌 정반대"라며 "궁극적인 목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어떻게 죄에 대한 용서, 영생,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제공하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보장하는지와 같은 차이를 지적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녀는 두려워하지 말고 무슬림들에게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말해야 하고,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분께 격려 받는다는 것을 느끼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독교와 이슬람의 신이) 같은 하나님인 체하는 것은 그들을 구원에 더 가까이 못 가도록 함으로써 큰 해를 끼친다. 같은 하나님이었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 이상으로 받아들이겠는가?"라며 "당신은 차이점을 지적할 필요는 없다. 우리 믿음의 진리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주님께서 하도록 하라"고 제안했다.

이어 그녀는 "발표하는 사람은 도전을 받을 경우 구원과 삼위일체의 기본원리를 분명히 말할 만큼 충분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이슬람교도들에게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기독교인들이 여러 신을 숭배한다는 개념"이라며 "우리가 세 분의 신의 신이 아닌, 세 위격으로 나타난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그녀는 "장소와 발표자를 선택했으면 통역자를 지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사람에게 복음의 능력이 직접적으로 흐르게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아울러 식사 초대에서 "문화적인 (차이를 반영한) 세심한 음식 제공"과 "그들에게 그들의 믿음에 대해 이야기해 달라고 요청하기만 하면 당신의 믿음을 나눌 수 있는 문이 열린다. 그것은 유사점을 찾는 것이 아닌 진리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 5년전엔 듣지 못했던 목회자 질문 7가지

교회성장전문 컨설팅 기관인 처치앤서스(Church Answers)의 대표 톰 레이너(Thom S. Rainer) 목사가 최근 크리스천포스트에 "5년 전 목회자들에게서 듣지 못했던 7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다.



톰 레이너 목사는 "지난 5년간 교회 사역의 풍경이 달라졌다고 말하는 것은 진부하지만 가장 분명한 사실"이라며 "이 변화들은 코로나가 그 이유인 경우가 많지만 어쨌든 현실로 일어났을 일이다. 코로나는 단지 변화를 가속화·악화시켰다"고 평가했다. 다음은 해당 칼럼의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1. 교인이 가족의 장례를 위해 재정적 도움을 요청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질문은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부쩍 많아졌다. 코로나로 인한 사망이 최소한 부분적으로 이를 설명한다. 우리 공동체는 관대하고 사역의 정신을 갖고 싶어 하지만 한 번 그렇게 우선순위에 두기 시작하면 미래에는 충족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

2. 언젠까지 다른 교회를 육성해야 할까: 처치앤서스는 2년 전쯤 새로 활성화되고 있는 단어로 '육성'(Fostering)을 소개했다. 이는 간단하지만 심오한 개념이다. 한 교회는 다른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돕는다. 육성 기간이 끝나면, 도움 받은 교회는 건강하거나 건강하지 못하거나 또는 도와줬던 교회에 편입된다. 육성 받은 교회가 도움을 준 교회에 의존되지 않도록 육성기간이 1년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생기기도 했다.

3. 나이 많은 교인들이 안전과 청결을 위해 교회시설을 가까이 보수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코로나시대에 특히 젊은 가정들은 교회에 안전과 청결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주로 나이 든 교인들이 다수인 교회들은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교회 지도자들에게는 실망스러운 일이 되기도 한다.

4. 여러분의 교회에는 자원봉사 사역 진행자(coordinator)가 있는가: 이러한 질문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지만 간단한 답은 없다. 이런 질문의 이면에는 교회가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 담겨 있기도 하다. 이외에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음모론자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목회자 부족 문제가 있는가 △오늘날 교단 지도자의 역할은 무엇인가 등에 대한 내용을 게재했다.

### 멕시코 국경 "물밀 듯이 밀려든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난민 문제에 이어 이민자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지난 16일 전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현재 미국 텍사스주 델 리오시와 멕시코를 연결하는 인터내셔널 다리 밑에는 임시보호소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이민자들이 몰려들었다. 수천 명의 이민자들이 입국 심사를 위해 다리로 모이고 있기 때문이다.

델 리오 시장은 이날 저녁 현재 1만 503명의 이민자가 델 리오 인터내셔널 다리 아래에 있으며 아침보다 8200명 증가했다고 말했다. 외신들은 수일 내 수천 명이 더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민자들 대부분은 아이티에서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불안한 자국 경제와 지진으로 인한 피해 때문에 미국으로 향하고 있다. 아이티에선 지난 7월 현재 대통령이 암살 당하고 지난달에는 진도 7.2의 강진으로 2200명이 숨지는 일도 벌어졌다. 아이티 외에도 쿠바, 베네수엘라, 니카라과에서 온 이민자들도 몰려들고 있다.

이민자들이 대거 몰려들면서 임시보호소는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 당국은 이민자들을 위해 인력을 늘리고 식수나 이동식 화장실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몰려드는 이민자를 지원하기엔 역부족이다. 현재 임시보호소는 임시 화장실도 20여개 밖에 되지 않고 먹을 것은 물론 식수도 부족한 상황이다.

31세의 아이티 이민자인 에르네스토(Ernesto)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에 도착한 이후 4번째로 물과 음식을 사기 위해 멕시코를 오갔다고 말했다. 캠프에서는 먹을 것을 제공받을 수 없고, 점점 돈이 바닥나고 있다고 전했다. 27세의 아이티 출신 이민자도 가족들이 땅바닥에서 잠을 잔다며 임시보호소의 열

악한 상황을 전달했다.

미국에서 이민자에 적대적이었던 트럼프 정부가 막을 내리고 바이든 정부 출범하면서 미국으로 향하는 이민자들은 급증하고 있다. 지난 7월에만 미국으로 넘어가다 체포된 불법 이민자 수는 21만명에 달한다.

나홀로 밀입국을 택하는 미성년자들의 수도 증가했다. 바이든이 미성년 밀입국자에 대한 이민개혁법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법안에 따르면 보호자 없이 입국한 18세 미만 미성년 밀입국자에 대해서는 곧바로 추방하지 않고 시설에 수용하면서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다.

실제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0월-2021년 7월 남서부 국경 순찰 과정에서 발견된 나홀로 밀입국 미성년자 수는 11만 3000명에 이른다.

### "인스타는 10대를 비참하게 만든다"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인 페이스북이 자회사인 인스타그램 애플리케이션이 10대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유해하다는 사실을 파악했음에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0대 소녀들은 화려한 모습을 뽐내는 '인플루언서'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더 많은 좌절감과 불안을 느꼈다.



14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페이스북 내부 문서를 입수해 페이스북이 지난 3년 동안 인스타그램이 젊은 이용자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러 차례 심층 조사해 젊은 연령층이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결과를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일부 10대 소녀들은 섭식장애로 치료가 필요할만큼 심각한 고통을 겪었다. 5년 전 처음 인스타그램을 시작했던 아나스타샤 블라스바(18)는 인스타그램 속 인플루언서들의 완벽해 보이는 신체와 삶에 매료돼 하루 3시간씩 인스타그램에 접속했고, 1년 전부터 섭식장애를 겪어 치료사와 상담을 하고 있다.

그는 "인스타그램에 접속하면 조각같은 몸매, 완벽한 복근, 여성들이 10분만에 비피(전신 운동) 100개를 하는 이미지만 보였다"고 말했다. "예뻐지거나 눈에 잘 띄기 위해 싸워야 한다는 압박이 들었다" "내가 너무 거대하고 못생긴 것 같다. 스스로 말랐다는 걸 알면서도 내 몸에 자신이 없다고 느꼈다"며 불안감을 토로한 10대들도 있었다.

내부 연구진이 지난해 3월 사내 게시판에 올린 문서에 따르면 10대 소녀의 32%가 '몸에 대해 불만을 느낄 때 인스타그램이 더 비참하게 만든다'고 답했다. 연구진은 "10대는 불안과 우울을 증폭시키는 원인인 인스타그램을 지목했다"며 "어린 여성들은 인스타그램에서 비교하면서 자신을 바라보고 묘사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조사 결과에선 영국 사용자의 13%, 미국 사용자의 6%는 자신의 자살 충동이 인스타그램 때문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경영진은 조사 결과를 보고 받았음에도 13세 이하 어린이용 인스타그램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로리 트레이엔 민주당 하원의원은 "즉각 어린이 인스타그램 개발 계획을 폐기해야 한다"며 청소년 이용자 보호에 힘을 쏟을 것을 촉구했다. 에드 마키 민주당 상원의원은 "끔찍한 내용이다. 저커버그가 답을 내놓을 것을 요구한다"고 압박했다.

인스타그램 관계자는 "위험성에 대해 전문가와 협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밖에도 플랫폼에서 왕따, 괴롭힘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선교와 교회

선교는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임하게 명하신 사명이다. 교회의 역사는 곧 선교의 역사라고 해도 전혀 무리가 없다. 신약 성경은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전개된 선교사역을 자세하게 소개한다. 그는 미래가 불확실할 때에는 땀방에 헤엄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 나라 확장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다. 사명을 다하기 위해 흘리는 땀과 피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선교는 복음을 드러내는 활동이다. 성령이 주도하시며 십자가의 능력을 드러내신다. 바울은 인간적인 기준에서 많은 것을 지녔던 인물이다. 그럼에도 자신이 부족하고 작은 자라는 진심 어린 고백을 주저하지 않는다. 사역 현장에서 생생하게 복음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그는 마지막 사명을 다 하기까지 복음의 능력에 불들려 쓰임을 받았다. 이처럼 사도행전은 선교사명을 감당할 오고가는 모든 세대의 교회가 무엇을 가장 중시해야 할 것인지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

한국교회는 세계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복음을 들고 조선 땅을 찾은 선교사들에 의해 세워졌다. 열악한 상황 속에서 미약하게 시작되었다. 사회적 변화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교회는 초기부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정을 쏟았다. 그 결과 전도를 받은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으며 1970년대부터 급성장하여 교회의 대형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한국교회가 선교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하였을까? 장로교는 1907년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 이기풍 목사를 제주도로 파송하였으며, 감리교는 이미 1902년에 인천 내리교회에서 하와이로 이주한 한인들이 위해 선교사를 파송한 바 있다. 그 후로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를 향한 선교를 간헐적으로 시도하였지만, 1970년대까지는 해외선교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1979년에 단지 93명의 선교사들이 26개국에서 활동할 정도로 미비하였다.

1980년대 이후 한국교회에 큰 변화가 찾아왔다. 세계선교에 눈을 뜬 것이다. 각 교회와 교단, 그리고 선교단체가 활발하게 선교사를 파송하였다. 1994년에는 3,272명의 선교사들을 119개국으로 파송하였다. 그 후 계속 그 수가 증가하여 2013년에는 무려 25,745명의 선교사들을 169개국으로 파송하였다. 2020년에는 팬데믹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2,259명의 선교사들이 168개국으로 파송되었다. 그러나 현장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비즈니스를 통한 선교사역을 펼치고 있는 평신도들의 수를 포함시키면 이보

다 훨씬 많은 수가 해외에서 복음전파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아부조족 외국 선교사들의 복음전파에 의해 출발한 한국교회는 현재 복음을 전 세계로 수출하는 선교 강대국의 위치로 탈바꿈을 한 상태이다.

선교하는 교회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것이 변하고 있다. 비대면 문화가 자리를 잡고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향후 어떤 모습으로 선교를 지속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 선교학자들과 선교에 경험이 많은 목회자들이 서로

일 선교에 대한 열정을 지닌 소수가 선교를 주도하지만 전체 교인의 호응을 얻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도와 선교의 강조점은 동일하다. 교회가 속한 지역을 중심으로 전파되는 복음과 외국 땅으로 나가서 전해지는 복음이 결코 다르지 않다. 죽은 영혼을 살리는 도구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해외에서 선교를 한다는 것은, 외국에 살고 있는 자들을 전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신 지상명령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무엇보다도 교회 공동체가 복음전파 사명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함께 헌신해야 한다.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는 해외 선교사역과

비만 교도들의 선교방식을 비판적인 견해도 있지만 이 시대 교회가 배울 수 있는 좋은 영적유산을 남겨준 것도 사실이다.

모라비안 교회가 탄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진젠도르프(Nikolaus Ludwig von Zinzendorf, 1700-1760)는 당시 경건주의 신학의 산실이었던 할레대학에서 공부를 하였다. 비록 변호사가 되어 사회경력에 시작하지만 학창시절 학교를 방문하였던 인도 최초 선교사의 간증을 들은 이후 졸업 선교에 대한 열망을 갖기 시작하였다. 그는 학교에서 신학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그는 세계선교를 꿈꾸며 독학

그들을 제대로 가르치는 일을 중시하였다. 그들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어떤 선교전략을 세우느냐에 앞서 성령이 주도하는 선교를 지향하였다. 성령이 계획하시고 실행해가시며 필요에 따라 선교사들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확신 속에 사명을 감당하였다.

윌리엄 케리는 영국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성장하였다. 그 당시 미국 독립전쟁과 프랑스 시민혁명 등 정세에 많은 변화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성경과 함께 탐험과 역사에 관련된 독서를 통해 세계를 마음에 품게 되었다. 그가 18살이 되었을 때 커다란 신앙적인 도전을 받게 되었는데, 영국 국교회의 전통적인 신앙행사에 묶여있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것이었다. 비록 교도에 속한 친구로부터 체험적인 신앙에 대해 듣게 되었고, 결국 복음의 능력 앞에 무릎 꿇고 진정한 회심을 경험하게 된 것이다.

케리는 근대 선교신학의 기초를 놓은 자이다. 세계의 종교상황을 파악하고 여러 자료들을 모아서 보다 체계적인 선교를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선교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가 가장 중시하였던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었다. 그는 복음의 능력은 개인은 물론 나아가서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확신을 지녔었다. 선교사명은 복음을 전파하여 죽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온 성도의 사명

과거 1997년에 다쳤던 IMF 경제위기는 한국교회의 선교 물량주의의 민낯을 보여주었다. 초기 한국교회 선교사들이 시행하였던 네비우스 선교방법이 지향하였던바 십자가 복음에 뿌리를 내린 헌신자들을 자립시키는 선교사역의 중요성을 깨달은 것이다. 그러나 경제가 회복되어 안정을 되찾다 시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선교가 교회의 자랑거리 또는 교회간의 경쟁 도구로 전락되기도 했다.

한국교회가 선교에 관심이 증가되었던 1980년대는 한국 경제가 눈부시게 발전하던 시기였으며,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해외선교가 이루어진 것은 결코 우연한 것은 아니다. 선교는 재정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 교회는 선교사들의 생활과 사역을 위해 물질적으로 돕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진정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선교는 재정지원 이상이다. 온 교회가 함께 선교사역에 구체적인 관심을 지니고 기도후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교회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지니고 있다. 선교는 전도와 구제와 함께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사명 중의 하나임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covenantcho@yahoo.com

개혁의 땀방울- 무엇을 기대할까? (43)

부제: 교회사가 가르친다!(29) - 선교 사역

조진모 목사

(Ph.D.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선교는 복음 드러내는 활동...성령이 주도하시며 십자가 능력 드러내 전도, 구제와 함께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

협력하여 선교사역이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이번 기회에 놓치지 않아야 할 매우 중요한 일이 있다. 80년대 이후 대폭 관심이 증가되어 현재 교회 전체 사역에서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선교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시도하는 것이다. 이 분야는 전문성이 요구된다. 기본 지식과 함께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의 작업이다. 선교 전체를 생각하면 업무가 나지 않지만 그 범위를 일반 성도들도 잘 알 수 있는 사항으로 대폭 축소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

한국교회의 과거를 돌아볼 때 우리의 기울어져 할 것이 있다. 선교를 위해 재정을 많이 사용하면서 교회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체 재정에서 선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반드시 그 교회가 선교지향적인 교회라고 볼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교회지도자 또는 일부 관계자들만 선교에 대한 열정을 지니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교인들 전체 사이에 선교사명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만

지역전도, 그리고 구제사역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자격을 갖춘 선교사들을 배출하는 일과 그들을 파송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후원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이라는 혹자의 표현에 동의한다. 헌지에 있는 선교사들을 위한 기도과 재정 후원은 물론,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가 요구된다. 특히 온 교회가 복음 전파를 위해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선교는 복음전파

선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영국 침례교 선교사 윌리엄 케리(William Carey, 1761-1834)에 의해 근대 개신교 선교 운동이 시작된 것을 알게 된다. 그러나 이보다 1세기 앞서 독일 경건주의의 영향을 받은 모라비안 교도들은 선교의 사명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실천하였는데, 케리는 물론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러도 이들로부터 결정적인 영향을 받은 바 있다. 일부에서는 독일 경건주의신학과 모리

로 성경과 신학 공부에 몰두하였다. 그에게 기회가 찾아왔다. 16세기 종교개혁 이전부터 체코에서 교회의 개혁을 외쳤던 순교자 존 후스(John Hus, 1369-1415)를 추종하던 '보헤미안 형제단'에 속한 성도들이 가톨릭교회의 핍박을 피해 독일로 피신하여왔다. 진젠도르프는 자신의 영도에 그들을 거두 수 있도록 배려하고 그들과 함께 교회를 세운 것이다.

모라비안 교회의 해외선교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50년 동안 165명의 선교사를 세계 전역에 파송하였다. 그들은 매우 단순한 동기로 선교에 임하였는데,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실천하였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전하는 것이었다. 복음을 올바르게 전하는 것은 지적으로 무엇인가를 가르치려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사함을 받는 은혜를 전달자 자신이 먼저 체험하고 그 놀라운 사실을 그대로 알려주는 것이라고 이해하였다.

이들은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을 선교지에 토착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삼았다. 그러므로 원주민들의 언어를 배우고 그들과 섞여 삶을 나누는 것만큼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 교회안내

Table listing various churches in California with their respective pastors and contact information. Includes churches like 감사한인교회, 나성순복음교회, 남가주순복음교회, 남가주사랑교회, 대동장로교회, 디아스포라선교회, 미주양곡교회, 미주평안교회, 빛과 소금의 교회, 복음장로교회, 베델한인교회, 세계소망교회, 열매교회, 엘피스사역원, 은혜한인교회, 주님세운교회, 주님의영광교회, 좋은마을교회, 코너스톤 교회, 토렌스조은교회, 하늘소망교회,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39)



### 리처드 백스터(Richard Baxter)의 “개혁신앙 목회자(The Reformed Pastor)” (10)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링)



10) 목회사역 확장-이 일은 다음 세대의 목회 사역을 크게 촉진시킬 것이다. 이 일은 장래 세대의 목회사역을 훨씬 쉽게 해줄 것이다. 이리하여 우리는 우리가 사는 현재에서뿐 아니라 장차 올 세대에서도 수많은 영혼을 구원할 것이다.

11) 가족과 안식일에 유익-이 일은 가정을 좀 더 잘 다스리고 안식일을 좀 더 잘 보낼 수 있도록 공헌한 것이다. 우리가 일단 가정들을 교육하여 저들을 하여금 매 주일 가족들을 독려하여 성경과 교리 문답 구절들을 공부하게 하면 그 가정에 큰 유익이 있을 것이다. 지식이 부족한 가정들도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다 보면 스스로 많은 것을 배울 수

우리가 지난 생애를 되돌아 볼 때 큰 위안을 줄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천국에 합당한 마음을 갖도록 촉구하다보면 우리 안에서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된다. 다른 사람들의 죄를 꾸짖고 그들에게 죄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을 가르치다 보면 우리 안에서 자기 죄에 대해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생긴다. 첫째는 우리말로 인해 스스로 자제하게 되고 둘째는 육신적인 데 빠질 시간이 없게 되기 때문이다.

14) 논쟁회피-이런 방법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성도들을 헛된 논쟁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고 성도들의 영적 교화를 거의 지향하지 않는 신앙의 사소한 문제에 관심과 열정을 낭

는 모든 자에게 영생을 약속한다. 그러나 우리의 이 일은 이것에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

16) 세대 간 계속 사역-이 일은 온 나라에 널리 퍼져 이제 이 일을 시작한 우리가 죽는다 해도 이 일은 계속될 것이다. 이 일은 지금 관여하고 있는 우리에게서 끝날 일이 아니라 이 나라 전역에 파급되어야 하는 일이다. 그 무관심과 나태함을 깨기 위해 우리는 지금 여기 모여 통회의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이다.

17) 개혁의 중요 부분-지금 우리가 권하는 의무는 아주 중요하고도 훌륭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 행하지 않은 교회개

고 그가 진정 메시아임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를 핍박하다가 결국 그를 죽였고 이스라엘 대부분 사람들에게 저주와 환난을 안겨주었다.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홀연히 그 전에 임하니 곧 너희의 사모 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말3:1-3).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죽인 이유는 그의 행동 방식이 자신들의 기대와 달랐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부귀와 자유를 가져다 줄 메시아를 원했고 그런 메시아가 아니면 절대 믿지 않겠다고 고집하였다. 이는 종교 개혁을 바라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부귀와 명예를 가져다 주고 사람들에게 마음대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해주는 개혁을 원했다. 그런데 막상 종교 개혁을 해보니 예전보다 더 몸



변명혜 박사  
(아주사범대학교 교수)

##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 우리 성도의 삶은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긴 여정이다. 처음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그 기쁨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커져 기꺼이 말씀을 행하려고 한다. 그러나 일상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성품의 변화와 함께 이루어지는 평생에 걸친 과정이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 같은 명령은 그만두고라도 “오래 참으라, 서로 친절하라” 그런 당연한 것 같은 말씀도 사실은 쉽게 행할 수 없는 말씀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또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할수록 초라한 나의 모습을 더 보게 되는 것 같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고 외친 사도 바울의 탄식이 나의 탄식이 되는 것이다.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고 싶는데,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고 싶는데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부족한 모습을 보게 되기 때문이다.

영성 개발에서는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는 것과 실제로 행하는 것 사이의 간격을 “willing-doing gap” 혹은 “성화의 gap”이라고 한다. 주일의 거룩한 것 같은 우리가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삶의 현장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이기 쉬워서 달라스 윌라드는 이 간격을 “Sunday-Monday gap”이라고 표현했다.

나의 은사인 클라우스 아슬러 교수님은 우리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말씀을 실천하며 살지 못하는 이유를 마가복음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로 설명하였다. 길가에 뿌려진 씨는 마음이 굳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사탄의 방해로 말씀을 받지 못하는 경우이니 성도들에게는 별로 해당되지 않는 것 같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힘들어 하는 것은 돌밭이나 가시떨기밭에 뿌려진 씨처럼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나 삶의 어려움이 올 때 넘어지든지 염려나 후회, 욕심으로 다가오는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일 것이다.

우리 마음이 원하는 것과 행하는 것 사이의 차이를 메우기 위해서는 그 차이를 인정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을 따라 행하려고 권면한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을 따르라는 말을 생각하다가 에베소서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라는 말씀이 눈에 들어왔다.

에베소서 4장 후반에는 성도들의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다. “거짓을 버려라, 참된 것을 말하라, 화를 내도 죄를 짓지 말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모든 악독과 노함, 분냄, 따드는 것을 버려라, 친절하게 해라, 불쌍히 여겨라, 서로 용서하라” 등 쉽게 순종하기 어려워 보이는 리스트들이다.

그런데 5장 1절은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된다. “그러므로”는 앞 문장과 뒷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어다. 성도로서 행해야 할 모든 행동들을 읽고 주눅이 들어 있는 나를 향해 그런 삶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의지가 아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이기 때문에 행할 수 있다는 크나 큰 격려의 뜻을 담은 접속사가 마음에 다가왔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이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아버지를 닮고 싶은 마음에서 그 분이 기뻐하는 뜻을 따라 살 수 있다는 말씀이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 즉 하나님을 따라 하는 자가 그분의 자녀이다. 마치 어린 시절 내가 좋아하던 선생님의 필체를 나도 모르게 닮아 갔듯이 이분의 사랑을 받은 자녀로서 서툴지만 하나님을 따라하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리에 있을 것이다. 사람의 사랑을 받아도 얼굴에 생기가 나서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라고 노래하는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녀라니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은 더 이상 버거움이 아닐 것이다.

인간관계에서도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듯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라는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닮아 가는 자로 살게 할 것이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따라 가는 사랑스러운 자녀로 하나님을 닮아갈 것이다.

lpyun@apu.edu

## 교회 개혁은 유대인들에게 있어 ‘메시아’ 와 같은 존재 메시아가 오기 전엔 그를 갈망했으나 그가 오자 죽어

을 것이다.

12) 시간 선용 유익-이 일은 나태해지기 쉽고 불필요한 대화와 일, 여행, 혹은 오락 등으로 시간을 제대로 잘 사용하지 못하는 수많은 목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일을 하다보면 다른 일을 할 시간이 없게 된다. 이처럼 귀중한 일에 몰두하다보면 모든 게으름이 치유되고 시간 낭비가 없어진다. 우리가 이 일을 부지런히 해보자. 그러면 빈둥거리거나 탐욕과 세상적인 일에 빠질 시간이 없어질 것이다.

13) 개인적 신앙유익-이 일은 우리에게 수많은 개인적인 이득을 가져다줄 것이다. 이는 우리 자신의 타락을 막고 우리에게 있는 은혜를 행사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 일은 우리 자신의 부패한 본성을 억누르고 은혜를 증진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준다. 우리의 양심에 평화를 가져다주며 나중에

비하지 않게 함으로서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우리가 복음의 기본 진리들을 가르치고 저들은 이를 배우는 중에 우리의 마음과 혀는 다른 사소한 논쟁으로 향할 여지가 없어진다. 그럼으로써 이 일은 목회자와 교인들 사이의 갈등과 긴장도 많이 치료할 수 있을 것이다.

15) 개혁과 구원-이 일은 여러 교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개혁과 구원을 위하여 계 획되었다. 이는 이상의 여러 혜택들을 우리 교구 내의 모든 사람에게로 확대시켜줄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은 앞에서 언급한 혜택들의 범위를 넓히는 데 매우 유용하다. 이 일의 목적은 우리의 여러 교구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개혁하고 구원하는 데 있다.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교육을 시킬 것이다. 복음은 모든 피조물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명한다. 또 믿고 이를 받아들이

는 모든 자에게 영생을 약속한다. 또한 이것이야말로 심판과 자비, 기도, 약속, 대가, 노력, 그리고 국가의 희생에 대 답하는 주된 방법이다.

우리가 지금 추천하고 있는 이 의무는 너무나 중대하고 너무나 훌륭해서 우리에게 남겨진 교회개혁의 주요 부분도 이 방법을 통해 성취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일은 나라의 심판과 자비와 기도와 약속과 비용과 노력과 피를 해결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이 될 것이다. 이 일 없이는 그런 것들이 성취될 수 없다. 의도한 개혁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고 교회는 여전히 낮은 곳에 처하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에게 있어 개혁은 유대인들에게 있어 메시아와 같은 존재이다.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은 그를 갈망하고 그를 자랑하며 소망 중에 그를 기뻐했다. 그러나 막상 그가 오자 유대인들은 그를 환대하지 않았다. 그를 미워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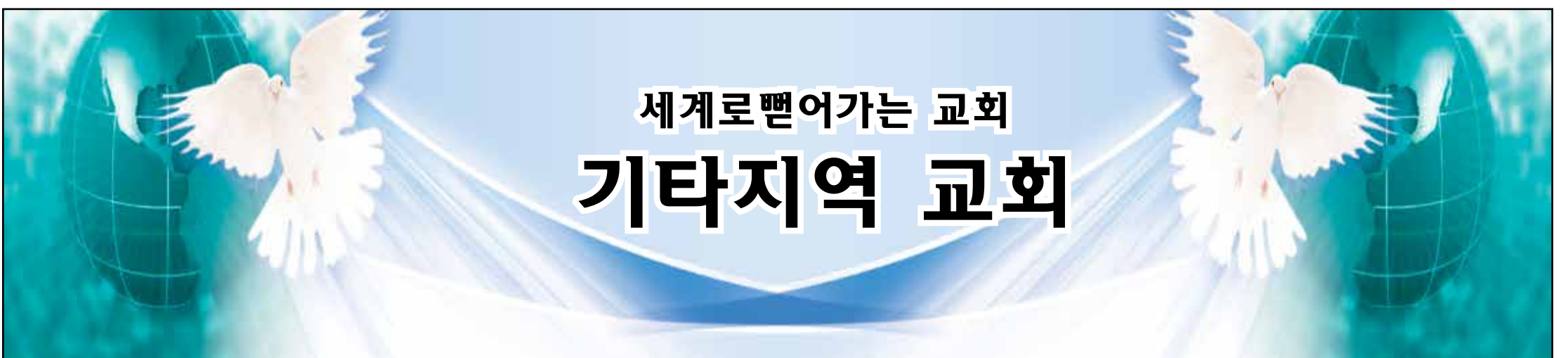
를 낮추어야 하고 더 많은 수고를 해야 함을 알았다. 그들은 불신자들을 자기 발아래 복종시킬 줄 알았는데 지금 오히려 그들을 겸손히 대접하고 그들 발아래 자기 손을 내밀어야 한다.

### 2. 사역의 어려움 면에서

지금까지 우리는 사역의 혜택 면에서 이유를 보았는데 이제는 두 번째로 어려움에서 야기되는 이유를 보자. 왜냐하면 난관은 우리가 어떤 필요한 일을 할 때 더 큰 부지런함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1) 우리 속에 내재해 있는 어려움 첫째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많은 우둔함과 게으름이 있다. 둘째 우리 안에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저속한 성향이 있다. 셋째,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어리석은 수줍음도 갖고 있으며 이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말하는데 장애가 된다.

(9면으로 계속)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b>갈보리장로교회</b>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b>다민족 교회</b> 담임목사: 홍귀표 주일 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학교: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성경공부/기도회: 수요일 밤 8:00 디너: 평일 저녁 4:00-7:00 Tel. (773)802-1112 esfross@yahoo.com 6050 W. TOUHY AVE. CHICAGO, IL 60646	<b>몽고메리교회</b>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222-0691, 267-471-7777, Fax. (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b>벅스키온티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풍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아예: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b>벤넬교회</b> 담임목사: 백신종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9: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찬양):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461-1235,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b>보스턴장로교회</b>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토요일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집회: 오후 8:00 유치, 유년, 중고등부: (주일)오전 11:00, (삼) 오후 8:00 Tel. (508)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ingham, MA 01948
<b>안다옥교회</b>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Tel. (702)749-9929, www.omychurch.org 6524 Dean Martin Dr., LV NV 89139	<b>알칸사 제자들교회</b>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철야: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501)920-9049, www.jea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b>앵커리지열린문교회</b> 담임목사: 유제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 아예: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b>영생장로교회</b> 담임목사: 백운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	<b>킬린온누리교회</b>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비전예배: 오후 8:00 토요일모임: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Tel. (254)535-1842(H), (254)501-4933(C)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b>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b>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 (703)941-4447, www.mpcow.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b>타코마 한인장로교회</b>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어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 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 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 요 예 배: 오후 7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 Tel. (253)536-6675, www.tacomacr.com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b>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b>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b>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b>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b>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목회서신



김요섭 목사 (열매교회)

나를 위해 울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언젠가 자신의 호흡이 멈출 날이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그 어떠한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울먹이시면서 남편이신 장로님이 숨을 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911에 전화를 하고 권사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나는 운전하며 가는 동안 마음이 차

잡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도 나를 무척이나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셨던 장로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장로님이 누워계신 방으로 들어가서 보니 너무나 평온한 가운데 계셨습니다. 죽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니다. 확인하고 싶어 손을 장로님 코에 갔다 대었습니다. 손에 아무런 콧바람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니다. 장로님은 주무시다 돌아가셨습니다.

장로님의 임종예배를 드리는 동안 나의 뇌리 속에서 두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오늘따라 왠지 모르게 장로님을 찾아뵙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여러 사역들을 하다가 잊어버리고 찾아뵙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과 지난 시간동안 장로님이 제게 베풀어주셨던 사랑이 있었습니다.

임종예배를 마치고 장로님을 생각하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기도회를 나가는 동안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동안

장로님 생각이 눈물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동안 장로님과 함께 나누었던 교제와 장로님이 제게 주셨던 진정한 사랑이 나로 하여금 눈물이 나게 하였습니다. 그러면 나도 누군가가 나를 생각하며 기억할 때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만약 내가 천국에 가게 되었을 때 나의 장례예배 때 나를 기억하며 나를 위해 울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만나고 교제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이별할 때 그 사람들이 정말로 나를 기억하며 울어줄 수 있습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사랑을 나누어주고 진실된 교제의 삶을 살아간다면 내가 떠나는 날 그들은 반드시

나를 위해 울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흔적들을 남기며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남편과 아내에게, 자식에게, 손주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성도들에게, 세상에 삶의 자취를 남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나의 믿음과 사랑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린다면 우리는 인생의 성공자로 축복받은 자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기억하며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기억이 되고, 나를 기억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yosupbois@hotmail.com



UMC칼팍연회 코리안 코커스가 온라인으로 열렸다

한인코커스 내 '한인교회협의회(가칭)' 조직 논의

UMC 칼팍연회 한인교회목회자 회의 개최

UMC 칼팍연회 한인교회목회자 회의가 지난 9월 9일 오후 7시30분 줌으로 개최됐다. 한인코커스 임원과 한인교회목회자들이 참가대상이었다 이날 모임에는 총 29명이 참가했다. 김낙인 목사(코리안코커스 회장) 사회로 열린 모임에서 부회장 정영희 목사가 설교했다.

이날 모임의 목적은 한인 코커스 내에 '한인교회협의회(가칭)'를 조직하기 위함이었다. 이 안은 참석자 29명 가운데 24명의 찬성으로 결의됐다. 이미 한인총회에서 한인교회들만의 모임인 '한교총'이 분리됐듯이 남가주 한인코커스에서도 한인교회들의 이슈와 당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한인교회 목회자들만의 조직이 결성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한인교회협의회의 목적과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를 이

를 논의하고 부지런히 이 일을 준비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그 어려움에 가로 막혀 우리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다. 2)성도들에게 볼 수 있는 어려움 첫째, 대다수의 성도들은 좀처럼 우리에게 와서 배우려 들지 않으며 가르침받기를 완강히 거부할 것이다. 둘째, 기꺼이 가르침을 받으려는 사람들도 너무나 둔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배워도 교리 문답서의 한 장도 채 배우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어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영상회의에 참석한 한의준 목사(하와이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는 "한인교회협의회를 구성할지라도 한인코커스 내의 Crossover Ministry, 여성목회자, Nexus 등 다른 그룹들과의 연계와 교류는 계속 활발히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인교회협의회 임원선정은 한인코커스 임원회를 개최해 한인교회협의회 임원을 추천한 후 추후 한인교회목회자 회의를 다시 소집해 코커스 추천 후보와 그 회의에서 추천하는 후보 중 표결로 결정자는 한의준 목사의 동인안이 26명 중 14명의 찬성을 얻어 통과됐다.

이날 안성주 장로(한교총 전국국평신도연합회장)는 전국 한인연합감리교회의 단합과 교류를 위해 기획하여 추진 중인 온라인 찬양제에 모든 교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정리: 박준호 기자)



대회장 정영희 목사 사회로 '복음의 자유를 억제당하는 국가의 교회'를 위해 미국주류교회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그의 영광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 지어다'

GIM주최 제17회 글로벌 국제선교대회

GIM(글로벌국제선교·교회연합)이 주최한 제17회 글로벌 국제선교대회(대회장 정영희 목사, 월넛크릭GIM교회 담임)가 9월 19일 오후 5시 샌프란시스코 지역 Fremont에 위치한 Echo church (담임목사 Paul McGovern)의 호스트로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미국 주류교회를 중심으로 30여 민족교회들이 연합해 열렸다.

이번 대회 주제는 '그의 영광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 지어다'(사96:3) 그리고 폐널에서는 '진리와 자유'(사61:1)의 주제에 맞춰 메시지, 선교폐널, 선교보고, 찬양으로 진행됐다. 선교보고는 6만명 이상의 아프리카인들이 거주하는 프리몬트의 개척선교사의 보고로 시작, Echo Church의 지역선교와 브라질 선교, 일본의 청년선교, 파키스탄, 이란, 이스라엘, 엘살바도르의 사역의 지역교회보고와 함께 해외선교보고가 있었다.

대회장인 정영희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선교폐널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각 민족 교회가 해당국가에서 부당한 법률을 통과케 해 복음의 자유를 박탈하고, 신자들의 부당한 대우와 압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도록 미국교회가 해야 할 역할"에 열린 논의가 있었다. 즉 기독교신자들의 부당한 대우와 핍박에 대해 어떻게 성

경적인 목소리를 내야하며, 미국교회가 해야 할 역할에 열린 논의가 있었다. 특히, 아프가니스탄에 남겨진 기독교인과 북한에 관한 현안에서, 미국교회는 진리의 복음의 사랑을 나누는 역할과 함께 비진리와 거짓과 부당한 압력으로 박해받는 국가의 교회에 "기도와 복음전도와 함께 올바른 정보의 교육과 집회를 갖고 복음의 자유의 방어를 위해 함께 옹호하며 일어나야 한다"고 뜻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 핍박받는 국가의 교회를 방문하고 격려하며, 컨퍼런스도 갖고 함께 연합하여 복음의 빛으로 어두움을 몰라내고 진리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강사인 Rick Durst 박사(Gateway Seminary 석좌교수)의 메시지에서 아프리카 니스탄의 난민과 남겨진 아프리카 카니스탄의 기독교인들을 지적하며, 그들을 복음 안에서 자유를 갖도록 미국교회가 연합해 기도하고 복음의 교제를 실천하며, 선교를 시작하자고 강조했다. (기사제공: GIM)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

(8면에서 계속) 넷째, 우리는 너무나 육신적이어서 우리의 이익을 추구하는라고 그리스도의 일에 불충실하다. 다섯째, 우리는 믿음이 너무 연약하며 우리의 연약한 믿음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 큰 장애가 되고 있다. 이것이 무엇보다 큰 문제이다. 여섯째,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일에 대해 너무나 기술과 자질이 부족하여 적합하지 않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더욱 결심

을 굳게 하고 부지런히 이 일을 준비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그 어려움에 가로 막혀 우리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다. 2)성도들에게 볼 수 있는 어려움 첫째, 대다수의 성도들은 좀처럼 우리에게 와서 배우려 들지 않으며 가르침받기를 완강히 거부할 것이다. 둘째, 기꺼이 가르침을 받으려는 사람들도 너무나 둔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배워도 교리 문답서의 한 장도 채 배우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셋째, 사람들이 가르침을 받으려 온다 해도 그들은 너무나 무식하고 이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우리의 말을 이해시킨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복된 기술이 필요하다. 넷째, 그들이 배운 것을 그들 마음속에 작용하고 양심에 깊은 영향을 끼치게 하여 구원의 가치를 가져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들의 양심에 말씀이 역사하도록 만들어 그들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

Table listing various churches and their pastors, including New York, New Jersey, and other regional churches.



# 동부교계 기사판

## 뉴욕교협 임시총회

뉴욕한인교회협의회(회장 문석호 목사)가 9월 30일(목) 오전 11시 뉴욕순복음연합교회(담임 양승호 목사)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안건은 “헌법 개정”이며 참석대상은 담임목사 1인, 평신도 대표 1인(사모 제외)이다.

▲문의: (718)279-1414

## “건강보험 생명보험 세미나”

지역교회부흥선교회(허윤제, 허윤준 목사)가 주관하고 뉴욕목사회(회장 김진화 목사)가 협찬하는 “건강보험 생명보험 세미나”가 9월 28일(화) 오전 10시30분 뉴욕만나교회(담임 정관호 목사)에서 열린다. 강사는 허재은 부사장(이로나눔선교회). 참가대상은 목사, 사모, 선교사, 전도사, 신학생, 평신도, 보험에 관심 있는 자. 세미나후 오찬이 제공된다.

▲문의: (718)637-1470

## 호돌이 방과후학교 대면수업 개시

뉴욕가정상담소(소장 이지혜) 호돌이 프로그램이 초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면 방과후 학교를 오는 10월 4일부터 시작한다. 월-금요일 오후 3-6시이며 장소는 중학교 189(144-80 Barclay Ave, Flushing, NY 11355). 숙제도움 및 프로젝트 기반학습, 사회성 및 리더십 향상, 태권도 및 사물놀이 수업 등으로 진행된다. PS22, 32, 107, 130, 159, IS 25 학교들은 학교에서 호돌이 방과후학교로 스쿨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문의: (917)497-4024



글로벌뉴욕여목협 2회 이웃사랑 찬양축제를 마치고 출연진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 찬양 능력 체험...기부금 장학금 전달

### 글로벌뉴욕여목협 2회 이웃사랑 찬양축제

글로벌뉴욕한인여성목회자협의회가 지난 9월 19일 제 2회 이웃사랑 찬양축제를 열고 기부금 수여 및 장학금을 전달했다.

회장 김희숙 목사는 “어려운 시기에 연합해 찬양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며 참석자들에게 감사했다.

김 회장은 “5회기가 ‘섬김’을 표어로 시작했을 때 아무 것도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셨다”며 “회원들의 재능기부로 찬양축제를 하자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마련했고 많은 후원도 있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시고 찬양을 통해 기적을 나타내신다. 찬양의 기적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권캐더린 목사 사회로 김정길 목사의 찬양으로 시작된 축제는 김사라 목사의 기도후 전희수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전희수 목사는 “찬양의 능력을 체험하는 축제”(시40:3)이라는 제목의 말씀에서 “찬양은 첫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역사를 일어나게 한다. 둘째,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셋째, 갇힌 문을 열어준다. 감옥에 있던 바울과 실라를 찬양할 때 참된 자유를 얻었다”고 말하고 “오늘 축제는 전문 음악인이 아닌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다. 상한 심령, 소망

을 놓친 자, 영적 침체가 있는 곳에 찬양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장해진 자매의 헌금특송, 헌금기도 조상숙 목사의 헌금기도 후 김희복 목사(뉴욕교협 부회장)가 축사했다.

김희복 목사는 “하나님은 환소를 드림보다 찬양을 기뻐하신다”며, ‘삼생(순종, 달리버리 인생, 빈손 인생)’을 설명하고 글로벌뉴욕한인여성목회자협의회가 많이 구제하고 사역이 세계 선교까지 확장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특송 임지윤 목사 인사 하나 자매, 인사말씀 회장 김희숙 목사, 중창 마하나임 중창단, 기부금 수여, 장학금 수여, 중창 김사라 안경순 목사, 크로마하프 연주 성음크로마하프선교단, 중창 조문자 목사 원그레 이스 권사, 솔로 정우철, 색서폰 듀엣 앙상블 정바울 목사 김사라 목사 송금희 전도사, 듀엣 안경순 권캐더린 목사, 합창, 축도 정순원 목사, 광고, 폐회 기도 및 만찬기도 라홍채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기부금은 퀸즈소망교회, 농아인교회, 새생명선교회, 주님의식탁선교회, 오른손구제센터, 국제장애인선교회, 거리시탁선교회, 다민족선교 등 8곳에 전달됐으며, 장학금은 정우철 이사무원 김하람 이준희 서잔 복상훈 백여원 등 7명에게 수여됐다.

(유원정 기자)

## 뉴욕일원 각 교단 노회 정기노회

### KAPC 가든노회 제89회 정기노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가든노회 제89회 정기노회가 14일 오전 10시 30분 뉴저지성도교회(담임 허상회 목사)에서 열렸다.

1부 개회예배는 부노회장 박해창 목사 인도로 기도 김지희 목사, 성경봉독 박정은 목사, 설교 노회장 조성훈 목사, 축도 이원호 목사, 광고 서기대행 이준성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노회장 조성훈 목사 사회로 진행된 회무처리에서는 △뉴욕제일장로교회(조성훈 목사)의

김호중 목사 후보생 고시 허락 청원과 장로 3인 증택 허락 청원을 허락했다.

뉴저지기쁨의교회 자칭 비상대책위원회로부터 박형기 목사 고소 및 해임 청원 및 담임 박형기 목사로부터 위탁관결 청원은 양측 모두에게 반려하기로 했다. 또 뉴저지기쁨의교회에 임시 당회장으로 조문선 목사를 파송하기로 결의했다.

가든노회는 12개 교회가 소속돼 있다.



KAPC 가든노회 제89회 정기노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 KPCA 뉴욕노회 제65회 정기노회

해외한인장로회(KPCA) 뉴욕노회 제65회 정기노회가 9월 13일(월) 오후 7시 뉴욕제일장로교회(담임 김종훈 목사)에서 열렸다.

개회예배는 부노회장 이상호 목사 인도로 기도 장로부노회장 김근태 장로, 설교 노회장 주영광 목사, 축도 전노회장 김천수 목사, 광고 서기 김일국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노회장 주영광 목사 사회로 진행된 회무에서는 △뉴욕예일

장로교회 김민 목사 노회가입 청원 △뉴욕한인연합교회 이준형 목사 노회가입 청원 △캠벨리치연합장로교회 김성준과 최광현 목사안수 청원을 다루었다.

뉴욕한인연합교회 이준형 목사 노회가입 건은 총회 헌법(5장9조)과 총회신학교육위원회 시행세칙에 따라 뉴욕장로회신학교에서 ‘헌법(정치와 신조)’ 한 학기 이수조건으로 허락하기로 했다.



KPCA 뉴욕노회 제65회 정기노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SBC 뉴욕한인지방회 제38회 정기총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영락교회 헌당예배를 마치고 참석 목회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 KPCA 제37회 동북노회

해외한인장로회(KPCA) 동북노회 제 37회 정기노회가 13일 오후 5시 줌 화상회의로 열렸다. 개회예배는 부노회장 이상훈 목사 인도로 기도 장로부노회장 정연오 장로, 설교 전노회장 이수영 목사, 축도 전노회장 이은희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임원보고를 통해 유럽노회 보전을 총회에 현의하기로 했으며, 노회비와 총회비 미납교회들에게 대해 납부를 적극 권유하기로 했다. 또 총회 목회자 은퇴연금 플랜을 노회차원에서 시행하도록 지교회에 격려했다.

이원보고를 통해 유럽노회 보전을 총회에 현의하기로 했으며, 노회비와 총회비 미납교회들에게 대해 납부를 적극 권유하기로 했다. 또 총회 목회자 은퇴연금 플랜을 노회차원에서 시행하도록 지교회에 격려했다.

### SBC 뉴욕한인지방회 제38회 정기총회

#### 신임회장 신은철 목사, 부회장 한필상 목사 선출

미남침례회(SBC) 뉴욕한인지방회 제 38회 정기총회가 9월 14일 오전 10시 새문교회(담임 신은철 목사)에서 열렸다.

1부 경건회는 총무 신은철 목사 인도로 기도 서기 안승백 목사, 설교 박진하 목사, 광고 총무, 헌금기도 및 축도 백창건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박진하 목사는 빌립보서 2:5-8을 본문으로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전했다.

2부 총회는 회장 박춘수 목사 사회로 11개 교회 15명의 대의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임원선거가 진행돼 신임회장에 신은철 목사, 부회장에 한필상 목사를 선출했다. 총무로 2년간 섬길 신임회장 신은철 목사는 “부족하지만 열심히 잘 섬기겠다”고 인사했다.

지난 회기 총괄보고에서 가장 눈에 띈 것은 △장기불참 회원교회와 준회원들을 규약에

로 했다. 헌의안은 △어스틴제일교회(박용진 목사) 장로 2인 증선 △목양교회(하진국 목사) 장로 3인 증선 청원 등을 다뤘다.

한편 학장 김종훈 목사와 교무처장 조태성 목사로 새로운 조직을 갖춘 뉴욕장로회신학대학(원)은 기관보고를 통해 가을학기부터 대면수업을 시작했으며, 신학교 수리관계로 10월 중순까지 하나님의사랑교회(정석진 목사)에서 강의한다고 보고했다. 또 신학교 수리비와 노회 지원금의 보조를 부탁했다.

파라 정리한 것: 뉴욕오직예수교회(노기명 목사)와 복음과영성교회(이태준 목사), 준회원이었던 이희선 목사와 안병재 목사를 정리했다. 또 개인신상 문제로 탈퇴한 뉴욕새에루살렘교회(노기송 목사)는 노기송 목사를 개인자격 준회원으로 받았다.

신안건으로 지방회 모임 횡수 및 방범 변경에 대해서는 신임원들에게 일임, 다음 월례회까지 연구해 의견을 내도록 했다. 지방회 규약에는 월 1회 모임을 원칙으로 하지만 지방회 소속 교회의 수가 줄어들어 교회의 부담이 되며, 팬데믹 상황으로 지난 1년간은 중화상으로 개최되기도 했다.

한편 뉴욕지방회는 7개 교회가 소속돼 있는 뉴저지지방회와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정리: 유원정 기자)

## “주님이 주신 선물” 간증

### 뉴욕영락교회 헌당예배... ‘오바다100프로젝트’ 소개

뉴욕영락교회 헌당예배가 9월 19일 오후 5시30분 롱아일랜드에 위치한 교회에서 열렸다. 영락교회는 쿼츠 코로나에 있던 교회건물을 팔고 헌당예배를 구입하고 지난해 5월 첫 예배를 드렸다.

헌당식에서 최호섭 담임목사는 헌당기도와 경과보고, 그리고 헌당예배 및 선언을 하며 놀라운 간증을 했다.

뉴욕영락교회는 한세원 목사가 1983년 개척했으며 1992년 코로나에 있는 건물을 66만 달러에 구입했다. 2009년에 한세원 목사가 은퇴하고 원로목사로 추대됐으며, 최호섭 목사가 2대 담임목사로 취임했다.

최호섭 목사는 헌당 경과보고에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0년을 연단의 시간, 훈련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 기도의 시간으로 표현했다. 최 목사는 성대결절로 10년 가까이 고생하다 2019년 수술을 하고 회복된 목소리처럼 새로운 비전을 찾아 10월 31일까지 교회이전을 위해 기도를 선포했다. 그리고 중국교회에 건물을 팔고 헌당예배를 구입하는 모든 과정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했다.

예배는 최호섭 목사 집례로 교회가 소속된 해외한인장로회 뉴욕노회 목회자들이 순서를 맡았다. 기도 김일국 목사(노회 서기), 찬양 할렐루야찬양대(지휘 김신애 사모), 말씀 한세원

원로목사(전 총회장)의 순서로 진행됐다.

메릴랜드에 거주하는 한세원 원로목사는 “항상 여기에 있다”(대하7:11-22)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건물만이 아니라 마음과 몸도 헌신해 하나님께 드리라”며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도록 날마다 경건의 훈련을 잘 감당하라”고 메시지를 전했다.

최호섭 목사는 “이렇게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섬기라는 마음을 주셨다”라며 “오바다 100프로젝트”를 시작해 코로나로 어려운 100명의 사역자에게 1천 달러씩 섬기는 사역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프로젝트의 20%를 이뤘다”고 밝히고, 해외한인장로회 뉴욕노회에 있는 선교사에게 먼저 후원금을 전달하기로 하고 대표로 이동홍 니카라과 선교사에게 후원금을 전달했다.

헌당식에서 최호섭 목사는 한세원 원로목사에게 화환과 선물을, 성도대표 오지환 장로와 최홍경 변호사에게 감사화환을 증정했다. 이어 20년 이상 장기근속자 5인(문정자, 신금자, 이윤숙, 소원자, 이화직)에게 표창이 진행됐다.

축하 순서에서는 주영광 목사(노회장)와 김종훈 목사(전 총회장)가 축사를 했으며 신상필 목사(전 노회장)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뉴욕영락교회 새 주소는 65 East Williston, East Williston, NY 11596.

(정리: 유원정 기자)

## 행사 및 일정, 재무보고

### 뉴욕교협 청소년센터 하반기 이사모임

뉴욕교협 산하 청소년센터(대표 황영송 목사)가 지난 9월 16일 하반기 이사모임을 갖고 사역보고와 회계보고 등을 하며 10월 정기총회를 준비했다.

또 24일과 25일 열리는 청소년 할렐루야대회에서 대대 홍보했다.

1부 예배는 사무총장 김준현 목사 인도로 안재현 목사(뉴욕총회교회 담임)가 기도하고 백달영 장로(이사)의 성경봉독 후 김홍석 목사(교협 증명회

장)가 설교하고 축도했다.

김홍석 목사(뉴욕늘기쁨교회 담임)는 “아름다운 흔적을 위하여”(행20:17-27)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대로 사역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게 된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2년간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한 마지막 설교 요지는 ‘나를 닮으세요’다. 바울은 소명을 받아 즉시로 행

했다(행9:15).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눈물(19절)을 닮은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성실하게 섬기는(청소년센터) 사역을 감당함으로써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자”고 전했다.

2부 회무는 이사장 송윤섭 장로 사회로 김준현 목사가 행사보고 및 일정, 재무결산서를 보고했다.

청소년센터는 △5월 2일 학부모세미나(“은라인시대 슬기로운 부모생활”) △24일 목회자컨퍼런스(가정폭력, 가족의 정신건강 그리고 교회의 역할) △7월 31일 유튜브 콘텐츠 컨테스트를 가졌으며 △유튜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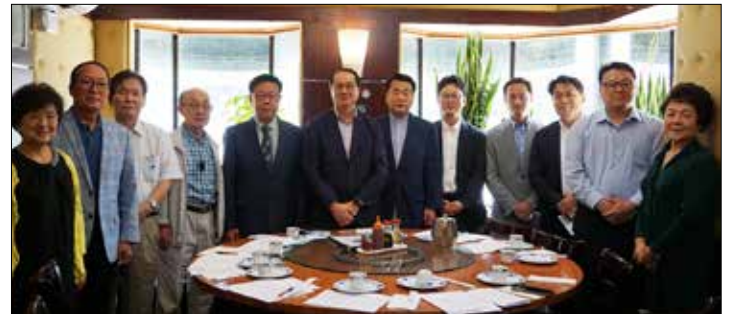
미디어 사역으로 매달 첫째 주 말씀, 둘째 주 찬양, 셋째 주 인터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청소년센터는 다음 달 정기총회에서 대표와 이사장이 새로 선출된다. 지난 5년간 대표직은 맡아온 회장 황영송 목사는 “연임하고 총 5년 정도 회장직을 맡았는데 장기집권(?)은 좋지 않다”라며 사무엘의 마지막 설교를 언급하고(청량함, 강직함, 뒤에서 기도) “젊은 담임 목사님들이 이사로 많이 영입됐다. 선교의 패러다임(난민대상 국내선교 등)이 바뀌어야 하는 이 시기에 잘 하면 2세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

며 차기회장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청소년센터 정기총회는 10월 20일(수) 오전 10시 청소년센터(교회회관)에서 열린다.

(유원정 기자)



뉴욕청소년센터 이사모임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고 조용기 목사 추모예배가 나성순복음교회에서 열렸다

### LA서도 조용기 목사 천국환송예배 나성순복음교회와 베데스다대학교 채플실에서

고 조용기 목사 천국환송예배가 여의도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한국시간 18일 오전 8시에 거행됨에 따라 미국 LA지역은 17일 오후 7시 30분 나성순복음교회와 베데스다대학교 채플에서 추모예배로 열렸다.

나성순복음교회에서 열린 추모예배는 본 교회 3부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김영환 목사(나성순복음교회) 인도로 시작, 장종현 목사(한교총 대표회장)가 기도했으며 바리톤 이영광 씨(여의도순복음교회)가 조가를 불렀다. 이어 김영환 목사가 성경봉독을 하고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요11:25-26)'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김장환 목사는 "조용기 목사는 한국교회의 큰 축복이고 자랑이었다. 그는 기도의 대장이었다. 기도를 통해 기적 맞았고 하나님 경험하셨고 예수님 만나는 성령충만을 체험하셨다. 그의 기도를 통해 수많은 병자가 치유 받았다. 그의 우선순위는 기도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마치는 날 천국에서 만나게 된다. 그때까지 주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해 나가

길 소원한다"고 말했다.

설교에 이어 김영환 목사 인도로 통성기도를 했으며 추모영상과 추모사 영상이 소개됐다.

이어 이상호 목사(북미총회 LA지방회장)와 송정명 목사(미주성서화운동본부 공동대표회장)가 추모사를 했으며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가 약력보고와 감사인사, 고인의 차남 조민재(국민일보 회장)씨가 가족대표 인사, 최종현 장로(나성순복음교회 장로회장)가 교회대표 인사를 했다.

이날 예배는 박종화 목사(국민문화재단 이사장) 축도로 마쳤다.

진유철 목사는 "고 조용기 목사님은 복음을 위해 보통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할 만큼 존귀하게 쓰임 받으셨다. 2천년 기독교역사에 인식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운 일들이 귀한 도구로 사용해주신 고 조용기 목사님 장례예배에 하나님은혜와 부활소망이 넘쳐나기 바란다. 조문객들 마음이 존귀한 마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로스앤젤레스 노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했다

### 김성일 총회총무 담임목사 시무사면 허락 KAPC 로스앤젤레스노회 제37회 정기노회

미주 한인 예수교장로회(KAPC) 로스앤젤레스노회(노회장 조정기 목사) 제 37회 정기노회가 9월 14일 오전 10시 새생명선교교회(담임 백현 목사)에서 열렸다.

회의에 앞서 드린 개회예배는 조정기 목사 사회로 이훈우 목사 기도, 양인수 목사 성경봉독, 조정기 목사 설교로 진행됐다.

회의에 앞서 드린 개회예배는 조정기 목사 사회로 이훈우 목사 기도, 양인수 목사 성경봉독, 조정기 목사 설교로 진행됐다.

조 목사는 '성도의 사명'(행 12:1-10)이란 제목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은 사명이

다. 나를 중심으로 만나는 분들을 향한 사명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이나 행위, 표정 등 모든 것으로 나누는 삶이 되도록 헌신해야 한다"고 말씀을 전한 뒤 송일영 목사의 집례로 성찬예식이 있었으며 오세훈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어 회무처리를 통해 김성일 목사(KAPC 총회 총무)의 노회 부회계 사임과 빅토빌예수마음교회 담임목사 시무 사면서를 허락했다.

(기사제공: 로스앤젤레스노회)



남가주주님의교회 창립 38주년 기념예배에서 김낙인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 조준희 시무장로, 김영매 명예장로, 박정현 협동장로 남가주주님의교회 설립38주년 기념 및 임직예배

남가주주님의교회(담임 김낙인 목사) 설립 38주년 기념 및 임직예배가 12일 오전 11시15분에 열렸다.

찬양팀의 찬양인도로 시작된 설립기념예배는 이상철 장로가 기도했으며 이재혁 목사가 성경봉독, 주기를 울동팀의 찬양을 했다.

이날 김낙인 목사가 '부름 받은 자의 사명(렘3:1-9)'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어 신천제직 임직식이 열렸다. 임직식은 임직자 소개, 임직자 문답, 시무장로 악수례

로 이어졌으며 정용치 목사가 축복 기도했다.

이어 임직자 헌신답사, 임직패 증정으로 이어졌다. 이날 립학훈 목사(남가주 코커스 직제심사위원장)이 권면사 했으며 이성은 집사가 축가를 부르고 윤용찬 장로가 축사했다.

이날 예배는 김낙인 목사 축도로 마쳤다.

이날 임직자는 조준희 시무장로, 김영매 명예장로, 박정현 협동장로, 박종수 은퇴장로다.

(박준호 기자)



나성금란교회 창립 39주년 기념예배에서 이석부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 교회는 믿음공동체...더 사랑하자 나성금란교회 설립39주년 기념예배

나성금란교회(담임 이석부 목사) 설립 39주년 기념예배가 12일 예배시간에 열렸다.

주기도문과 찬양팀의 찬양인도로 시작된 예배는 나형찬 장로가 기도했으며 이석부 목사가 '내 교회를 세우라(마 16:13-20)'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석부 목사는 "팬데믹으로 인해 모든 인류에게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당했다. 코로나19사태로 많은 것을 겪었다. 하지만 하나님 은혜로 잘 견뎌왔고 39주년 감사예배를 드려졌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교회가 왜 필요한지 우리는 부름 받은 이들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해야 한다"며 "교회는 이 땅에 주님이 세우신 믿음의 공동체다. 세상의 어느 공동체와 다른 공동체다"라고 말하고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공동체이기 특별하다. 교회는 주님이 설립자이시고 목회자를 비롯해서 성도들은 교회의 일원으로 부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주님 안에 믿음

이 신앙공동체가 됐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사랑해야 하며 은혜롭고 사랑이 충만한 교회 기쁨이 넘치는 교회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마음을 쓰고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39년 동안 나성금란교회를 부흥하고 발전하게 하셨다. 건강하고 평안한 교회로 인도해주실 것이다. 교회, 교단문제보다 내 신앙상태가 어떠냐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있느냐가 문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를 더 사랑해야 한다. 교회를 위해 더 기도하자. 모임이 다시 허락되는 대로 더욱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 교회를 위한 헌신과 봉사를 더 힘써야 한다. 주님을 믿고 승리하는 신앙의 삶을 살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예배는 이석부 목사 축도로 마쳤다.

나성금란교회는 82년 9월 사우스베이중앙감리교회로 설립예배가 드려졌으며 86년 5월 현재 장소로 이주해서 사역하고 있다.

(박준호 기자)



솔트레이크장로교회 창립 43주년 기념예배에서 조영석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 오후에 조영석 목사 찬양콘서트 열려 솔트레이크장로교회 설립43주년 기념예배

솔트레이크장로교회(담임 권영준 목사) 설립 43주년 기념예배가 12일 오전 11시에 열렸다.

찬양팀 찬양인도와 권영준 목사 사회로 시작된 이날 예배는 이창수 장로 기도, 찬양사역자 조영석 목사가 '성공한 인생, 성공한 교회(행13:21-23)'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조영석 목사는 "자신의 삶의 중요한 시간이 지날 때마다 시로 고백한 자가 다윗이다. 다윗은 자기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항상 나누며 살았다"고 말했다.

그는 "다윗과 사울 모두 하나님과 함께했지만 다윗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것은 잘못과 실패, 죄가 없어서가 아닌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라며 "우리 삶 역시 마찬가지다. 역경과 고난을 지날 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가까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교에 이어 조영석 목사가 특송했다.

이날 예배는 권영준 목사 축도로 마쳤다.

한편 이날 오후 조영석 목사 찬양콘서트가 있었다.

(박준호 기자)

## 서부교계 게시판

**세계선교교회 설립48주년 감사예배**  
세계선교교회(담임 김창섭 목사) 설립 48주년 감사예배가 26일(주일) 오전 8시, 11시에 열린다.  
▲문의: (213)388-1927

**아메리카한인연합재단 성령애국집회**  
아메리카한인연합재단(총회장 이우호)은 성령애국집회를 30일(목)부터 10월 2일(토)까지 비전커뮤니티교회에서 개최한다. 이번 대회 특별강사로는 오레곤 5선 임용근 의원, 펜실베이니아 김현국 목사, 필라델피아 이병한 목사, 시애틀 한성주 장군, 오렌지카운티 ABC교육구 유수연 교육감이 참여한다.  
▲문의: (754)366-9923



노회 가입과 이명을 허락받은 김정수 - 김동진 - 안광진(왼쪽부터)목사

### 교단가입 2명, 이명 1명, 은퇴 1명 KAPC 남가주노회 제 69회 정기노회

미주 한인 예수교장로회(KAPC) 남가주노회(노회장 박용일 목사) 제 69회 정기노회가 21일 오전 10시 서문장로교회(담임 박준식 목사)에서 대면과 Zoom으로 열렸다.

박용일 목사(남가주미마누엘교회) 인도로 시작된 1부 예배는 최태규 목사의 기도와 정철 목사(새생명한인교회)가 말씀('회복의 원동력', 사6:1-8)을 전했다.

이어 박준식 목사(서문장로

교회) 집례로 성찬식을 가진 뒤 양경선 목사(샘물교회)의 축도로 마쳤다.

2부 회무처리를 통해 김동진 목사(교단신학교 교무처장), 김정수 목사(한인소망교회 EM)의 노회가입 및 안광진 목사(SD소망교회 담임)의 이명을 허락했으며 이창후 목사(SD소망교회)가 은퇴함으로 담임목사 시무 사면을 허락했다.

(기사제공: KAPC 남가주노회)



좋은마을교회 창립 37주년 감사예배에서 관계자들이 케익을 자르고 있다

### "은혜의 강물을 흘려보내라!" 좋은마을교회 설립 37주년 감사예배

좋은마을교회(담임 신원규 목사) 37주년 설립감사예배가 19일 예배시간에 열렸다.

신원규 목사는 "설립 37주년을 맞아 감사할 것을 생각해봤다"라며 "감사한 것은 △37년간 주께서 한결 같이 함께해주신 것 △교회에 보내주신 어린 생명들을 섬길 수 있었던 것과 고아사역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어느 때보다 주님과 가까이 교제할 수 있는 삶을 주신 것 △팬데믹 기간에도 한주도 빠지지 않고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는 예배의 삶을 주신 것 △장로, 권사, 집사 등 동역자를 주신 것 △복음의 빛진자로 부름을 갖게 하신 것 △귀한 교역자 주신 것 △귀한 장로 권사 그리고 집사님 주신 것 △의식을 매일 주신 것과 아름다운 자녀를 주신 것 감사 감사하다"고 말했다.

신 목사는 "감사함을 더 감사할 수 있게 사역하겠다"고 말했다.

신원규 목사 인도로 시작된 예배는 온 교인들이 장립주일을 맞아 감사의 조건을 놓고 합심 기도했으며 한명숙 권사가

특송했다.

이어 신원규 목사가 '은혜의 강물!!(렘2:8-10)'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신 목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생활 여러 요소에 잘 활용하고 있다"며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은혜는 다르다. 세상 인들에게는 생명이 없다. 교회에서 사용하는 은혜에는 소중한 생명이 들어있다. 생명이 인격적이기에 느껴지게 되고 받아들여지게 돼있다. 성도들의 은혜는 교제 속에 사용되면 생명의 교제가 된다. 성경의 시작이 은혜였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 은혜를 가득 담아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지음 받은 자다.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듯이 우리 심령에 생동감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는 교인들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예배는 신원규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 예배, 교제, 교육, 선교하는 교회 오버플로잉교회 설립 10주년 감사예배

오버플로잉교회(담임 김충만 목사) 설립 10주년 감사예배가 19일 오후 2시에 열렸다.

한국 넘치는교회 등에서 본 교회 설립 10주년을 축하하는 영상메시지 소개와 본 교회

TOC찬양팀의 찬양인도로 시작된 이날 감사예배는 박준형 목사가 기도했으며 박희민 목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행11:19-26)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박희민 목사는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교회는 첫째, 주의 손길에 함께한 교회였다. 코로나 19로 인간의 노력이 힘없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다. 인간의 손은 실패와 성공 두 가지가 있다. 하나님의 손은 무에서 유를, 병자 치유한 불완전한 걸 완전하게 해주시는 손이다. 주님의 손이 한분 한분 어루만져 주셔서 심령이 변화되기를 축

원한다. 20주년을 향해 가는 교회를 통해 수많은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축원한다. 둘째, 하나님이 은혜가 충만한 교회다.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회만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것 좋은 것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현존과 임재를 체험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오버플로잉교회가 은혜충

만한 교회로 커가길 바란다. 셋째 좋은 리더십이다. 교인 한사람 한사람이 가정과 지역사회 세상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부름 받았다. 넷째 생명력이 넘치는 공동체였다. 한분 한분의 변화, 가정의 변화, 교회의 변화로 LA와 미국과 세상이 변화되는 바람을 부는 교회공동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설교에 이어 김충만 목사가

교인들과 함께 비전선포를 했다. 이날 예배는 박희민 목사 축도로 마쳤다. 오버플로잉교회는 '예배하는 교회(요4:24), 교제하는 교회(행2:42), 교육하는 교회(딤후3:16), 선교하는 교회'라는 비전으로 사역하고 있다.

(박준호 기자)



## 새 총회장 고명진 목사 추대

기독교한국침례회 111차 총회, 제1부총회장 김인환 목사

기독교한국침례회(이하 기침·총회장 박문수 목사)가 16일 대전 서구 동안동로에 있는 디딤교회에서 제111차 정기총회를 열었다. 기침은 코로나 19 확산세가 지속되자 2박3일

로 계획했던 총회 일정을 하루로 축소하고 전국 24개 회의장에서 분산 개최했다.

개회 예배에서 직전 총회장 윤재철(대구중앙교회)목사는 '함께하니 두려워 마세요'(수

1:1-9)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윤 목사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라고 말씀 하셨다"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단, 교회와 함께 하시면 문제될 게 없다. 하나님 능력을 신뢰하고 불들과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살아계심과 능력으로 귀한 교회와 교단, 삶이 되기를 축복한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는 1300명의 대의원이 참석했다. 오전에는 총회 규약·정관 개정 및 인준안을 처리했다. 오후에는 사업보고 및 기관별 사업계획보고, 총회장 선거를 진행했다.

이날 신임 총회장에 고명진(수원중앙침례교회)목사가 박수로 추대됐다.

고 총회장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침례교단 성도들과 함께 하며, 목회자들의 마음과 뜻을 모으는 총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대를 알고 그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았던 성경 속 리더처럼 시대의 상황을 정확히 판단해 비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사역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덧붙였다.

제1 부총회장은 김인환(함께하는교회)목사와 이윤(대전은포침례교회)목사가 후보로 나

서 경합했다. 1차 투표에선 김 목사와 이 목사가 총 988표 중 각각 544표, 420표를 받았다. 총회 규약과 선관위 규정에 따라 3분의 2 득표자가 없으면 2차 투표를 실시해야 하지만 이 목사가 기권을 선언하면서 김 목사가 부 총회장에 당선됐다.

상정된 11건의 안건 중 9건도 처리했다. 특히 시대적 요청이 반영된 '성폭력 대책기구 구성의 건' '평등에 관한 법률안(평등법) 반대 성명' '기후변화 위기에 따른 실천선언문' 등은 대의원들의 의사를 반영해 통과됐다.

총회는 평등법 반대 성명에서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24명 의원의 동의를 얻어 발의했다"며 "이 법의 내용과 목적은 지난해 정의당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 금지법'과 유사하다. 교단의 신앙에 위배될 뿐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총회는 또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존하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 에너지 절약, 일회용품 절약, 미니멀 라이프, 나누는 삶을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총회 규약 개정과 관련해서 원로 목사에게 대의원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8조 4항을 삭제했다.

## “영적 운동의 위대한 지도자, 그의 영향력은 계속될 것”

해외 언론은 조용기 목사의 별세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과 전세계 교회에 끼친 그의 영향력과 사역을 소개했다. 71개국, 지구 120바퀴를 돌며 해외성회를 열었던 조 목사의 발걸음만큼 보도 매체는 미국, 영국, 일본부터 중동의 아랍에미리트(UAE), 서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까지 국경과 지역을 가리지 않았다. AP통신과 미국의 CNN,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 일본 아사히신문 등 주요 매체는 14일 조 목사를 '한국의 가장 큰 교회(mega church)를 일군 인물'로 소개하며 별세 소식을 보도했다.

## 조용기 목사 별세에 해외 언론과 목회자 반응

AP통신은 “한국전쟁 이후 기독교의 급속한 성장을 상징하는 한국의 가장 큰 교회의 설립자가 사망했다”며 “조 목사는 한국이 한국전쟁의 잿더미에서 스스로 재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58년 5명의 예배자들과 함께 서울에서 교회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의 지도력 아래 교회는 폭발적인 성장을 이뤘고 유교 사상이 깊었던 한국에서 기독교가 급속히 성장하는 상징이 됐다”고 덧붙였다.

CNN도 교회 지도자들의 국제기구인 '리더십네트워크'를 인용해 조 목사가 설립한 교회는 “매주 48만명 넘는 참석자가 있는 세계 최대 교회”라고 소개했다. 또 “조 목사는 한국 내에서 매우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됐다. 기독교 일간지를 창간하고 인도주의적 NGO를 설립했으며 여러 권의 책을 저술했다”고 설명했다.

UAE 주요 신문인 걸프뉴스는 조 목사의 사역을 소개하면서 2008년 교회 담임목사직에서 물러날 때 가족이 아닌 후배 목회자가 뒤를 이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걸프뉴스는 한국에선 전례 없는 '민주주의적 권력 전환'이라고 평가했다.

나이지리아 매체인 데일리포스트나이지리아는 '구원받은 기독교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교회'(RCCG)의 에녹 아데보예 목사의 글을 소개했다. 1952년 나이지리아 라고스에 세워진 RCCG는 오순절 대형교회다. 아프리카에서 급성장하며 평균 출석 성도가 10만명이나 된다.

아데보예 목사는 “부활의 아침에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의 임재 안에 편히 쉬십시오”라고 애도를 표한 뒤 “몇 년 전 초대를 받아 한국의 조 목사님 사무실에서 만났을 때 '저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조 목사와의 인연을 소개했다.

해외 주요 기독교 매체들도 조 목사의 죽음을 애도하며 그가 한국과 세계교회에 전한 구역조직(셀 모임) 사역 원리를 소개했다.

미국의 크리스채리티투데이(CT)는 “조 목사가 설립한 여의도순복음교회는 매주 7번의 주일예배에 약 80만명이 출석하는 교회로 성장했으며 수백 명의 목사와 수천 명의 평신도가 매주 10~15명의 소그룹을 이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조 목사는 셀 그룹 사역의 개념을 대중화했다. 셀 사역이 제자도의 열쇠며 개인과 교회의 연결을 강화한다고 봤다”며 “또한 역동적인 교회 성장에 치우라는 오순절 관행과 기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CT는 조 목사의 저서를 발췌해 셀 사역 원리를 소개했던 84년 지면 기사도 홈페이지에 띄웠다. 당시 CT는 조 목사의 저서를 인용하며 여의도순복음교회가 셀 사역을 통해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됐는지 소개했다.

미 기독교방송사 CBN은 “조 목사의 영향으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견고한 기독교 공동체 중 하나가 됐으며 한국전쟁 이후 몇 년 동안 대형교회의 인기는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기독교 외신들은 해외 신학자, 목회자들의 추모글도 전했다. 미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미국 명문 기독교 사립대학인 오랄로버츠 대학의 빌리 윌슨 총장은 트위터를 통해 “조 목사는 영적강화운동의 위대한 지도자 중 한 명”이라며 “그의 유산과 영향력은 여러 세대에 걸쳐 계속될 것”이라고 애도했다.

싱가포르의 트리니티 크리스천 센터의 도미니 여 목사는 “나도 조 목사를 만나는 특권을 누렸고 교회를 인도하고 양떼를 제자로 삼는 그의 운우하면서 강력한 리더십에 감동을 받았다. 세상은 강한 하나님의 사람을 잃었지만 하늘은 성도의 귀환을 기뻐하고 있다”고 추모했다.

## “교회는 기성세대 스테레오 타입 모여 옛 방식 고수하는 보수적 집단”

기운실, MZ세대 목소리 담은 좌담회 개최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운실)이 MZ세대들을 초청해 이들이 바라보는 한국교회에 대해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코로나19 상황 속 한국교회 하면 '방역 협조 거부' '예배 강행' 등의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고 말했다.

기운실은 지난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코로나19와 한국교회, MZ세대가 말한다-청소년 편'과 '청년 편'을 올렸다. 앞서 기운실은 지난 4월과 6월 언론인, 정치인, 이웃종교 등 외부 시선을 통해 한국교회를 들여다봤다.

청년 편 패널로 나선 정민호 씨는 “한국교회 하면 방역 협조 거부, 예배 강행 등의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며 “일부 기독교인들이 강행했던 광화문 집회 등을 보면서 내가 속한 한국교회 범위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됐다. 종교, 신앙이란 이름으로 행해지는 일련의 비정상적인 모습에 한국교회와 거리를 두게 됐다”고 말했다.

함께 패널로 나선 조혜진 씨 역시 “교회는 기성세대들의 스테레오 타입이 모여서 지배 구조든, 소통 체계든 옛 방식을 고수하는 보수적인 집단이란 생각 밖에 안 든다”며 “교회 관련 뉴스에 '기독교인은 자아 성

찰을 못 한다'라는 댓글이 달렸는데, 그걸 보고 많이 공감했다”고 전했다.

청소년 편에 등장한 서예나(18)양은 “주변 지인 10명 중 9명은 기독교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며 “방역 수칙 어기고 예배를 드린 일부 교회, 범죄를 저지른 목사님 혹은 성도님들 얘기를 듣고 그런 인식을 갖게 된 거 같다”고 말했다.

청소년 편 패널로 나선 김단(17)양 또한 “코로나19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더라도 그걸 직접 누군가에게 표현하진 않았다. 그런데 코로나19 이후론 확실히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혐오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린 교회의 모습에 하나같이 안타까워했다. 서양은 “(지금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지만) 사실 원래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다”며 “일부의 모습이 기독교 전체로 받아들여져 오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내가 그 (좋지 않은) 인식을 더 악화시키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좋은 사람으로 성장해 가야겠다”고 말했다.

## 개발협력 분야 전·현직 전문가 초청

한동대, 코로나시대 지속가능한 고등교육 위한 포럼

한동대학교(총장 장순홍) 유네스코 유니트윈 사업단이 9월 8일부터 12월 8일까지 매주 수요일 총 13회에 걸쳐 코로나 시대 지속가능한 고등교육 개발전략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포럼을 대면·비대면으로 개최한다.

포럼에서는 개발협력분야 전·현직 전문가들의 강연 등 코로나19로 개도국이 직면한 사회경제적 주요 이슈와 고등

교육 전략과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8일 포럼에는 배성근 대전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전 교육부 대학정책실장), 차중찬 APEC 국제교육협력원장 등이 참석해 '교육분야의 개발협력 현황과 과제'로 주제 강연을 이어갔다.

이날 개회사에서 장순홍 총장은 “이번 포럼으로 유네스코 유니트윈 사업이 다양한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고등교육 발전의 선두주자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배성근 부교육감은 “코로나로 멈추었던 고등교육 분야 ODA 관련 논의가 한동대 포럼을 기점으로 전국적으로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유니트윈 사업 11개 협력국(우간다,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몽골, 네팔, 르완다) 대상으로 진행되며, 전직 대사, 개발협력 전문가, 개도국 현직인 정책 전문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포럼 영상은 한동대 유네스코 유니트윈 유튜브 계정에 게시될 예정이다.

## 조선을 사랑한 선교사 ‘게일’ 기획전시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에서, “기이하고 놀라운 사람”

제임스 스카스 게일(한국명 기일·1863-1937) 선교사의 일생과 업적을 다룬 전시회가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에서 진행 중이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 출신의 선교사 게일은 1888년 기독교청년회(YMCA) 파송 선교사로 25세에 조선에 들어와 40년간 헌신했다. 어학에 타고난 재능이 있었던 그는 한국어를 빠르게 익혀 한국 최초의 한영사전을 만들고 존 번연의 소설 '천로역정'과 찬송가를 우리말로

번역했다. 성경 요한복음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고린도서를 한글로 번역했는데 '갓(god)'을 '하나님'이란 표기로 확정된 것도 그였다.

게일 선교사는 우리나라 고전 문학인 '구운몽' '춘양전' '홍길동전'을 영문으로 번역해 조선의 문화를 해외에 알리고자 힘썼다. 그는 1898년 서울 연지동에 있는 연못골교회(현 연동교회) 초대 목사로 사역하면서 연동 여학교(현 정신여중고) 예수 중학교(현 경신중고

등학교)도 설립했다.

이승재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 학예사는 국민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게일 선교사는 조선에 대해 이해가 깊었던 선교사였다”면서 “그가 언더우드나 아펜젤러 선교사처럼 유명한 분은 아니지만, 게일 선교사는 이 땅에 복음을 전한 것뿐 아니라 조선의 문화를 존중하고 한글을 발전시키는 등 큰 족적을 남겼다. 이번 전시를 통해 게일 선교사에 대한 지평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이하고 놀라운 사람 게일”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는 게일의 성장기부터 은퇴까지의 일생을 다뤘다.

## 건강 길라잡이



이영직

내과전문의

## 고환염

-영화사에서 일하는 30대 초반의 김 씨는 일주일 전부터 오른쪽 고환이 아팠다. 처음에는 매일 하는 아침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해서 오는 통증인 줄 알았지만 통증이 더 심해지고 오른쪽 고환이 심하게 부어 올라서 병원을 찾아왔다. 이를 전부터는 열이 나고 요도 끝에서 노란 분비물이 나왔다. 또 소변을 볼 때 따가운 통증을 느꼈으며, 대변을 보거나 힘을 줄 때 고환의 통증이 심했다.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지는 않았다. 김 씨는 평소 술, 담배를 일절 하지 않았고 최근에

결혼한 아내 외에 다른 여자와 성관계를 맺은 적이 전혀 없었다.

김 씨는 이학적 검사상 체온은 38.0도로 미열이 있었고, 오

른쪽 고환이 심하게 부어 있었으며 고환을 건드릴 때 몹시 심한 통증을 호소했다. 김 씨는 부고환염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며 필요한 소변검사와 혈액 검사를 하고 항생제 치료를 시작했다.-

고환에 생기는 고환염은 주로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생기는데 고환 주위에 있는 부고환에 염증이 생기면서 동시에 고환에 감염이 생긴다.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경우는 볼거리mumps를 앓는 중에 약 30%에서 고환염에 걸릴 수 있다.

볼거리 바이러스로 인한 고환염은 사춘기 소년에서 흔하고 이런 경우 약 30%에서 고환의 위축과 정자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 부고환이나 전립선에 염증이 생기면서 고환염이 생기는 경우는 주로 세균성으로 오는데 특히 임질이나 클라미

##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발생

디아와 같은 성 접촉으로 인해 오는 경우가 많고 19-35세 사이의 남성에서 많이 볼 수 있다.

고환염에 걸릴 수 있는 위험 인자는 45세 이상의 남성이나 자주 소변감염이 있거나 어린

적에 볼거리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 비노기계통의 수술을 한 경우 등에서 위험이 높다. 성병에 걸릴 위험이 높은 남성도 고환염의 위험이 높다.

요즘은 볼거리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접종을 어릴 때 하기 때문에 발생 빈도가 많이 줄어들었다. 세균성으로 생긴 고환염은 항생제 치료로 1-2주 이내에 회복되고, 바이러스로 인한 경우는 저질로 좋아지지만 통증이 심할 때는 진통제를 사용할 수도 있다. 드물게 합병증으로 고환에 고름이 생길 수도 있고 고환염을 앓고 난 후에는 정자 수 감소로 인해서 생식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

고환염은 때때로 고환이 꼬이는 고환 염좌와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초음파검사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213-383-9388

##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국.....	\$100	유럽.....	\$240
	캐나다.....	\$130	남미.....	\$240
	한국 및 동남아시아.....	\$240	아프리카.....	\$240

신청유형	<input type="checkbox"/> 본인구독	<input type="checkbox"/>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명)	한글 : _____	영 어 : _____
배달주소	_____	
전화/Fax	( ) ( )	( )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꼭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영 어
전화번호/Fax	( ) ( )	( ) ( )
배달주소	_____	
교회/기관명	_____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nychpress@gmail.com

신청일자: 20\_\_년\_\_월\_\_일 신청인성명: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213)674-7982, (323)665-0009 E-mail: lachpress@gmail.com

■ N.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 mission 선교의 창 (178)



송종록 목사 (크로스선교전략 연구소)

## 여호와 샬롬이 필요한 아프가니스탄

2021년 8월 30일 밤 11시59분 아프간의 수도 카불 공항에서 미국의 마지막 C-17수송기가 이륙했다. 그 순간 카불의 밤하늘에는 축제의 폭죽이 터뜨려졌다. 이로써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전쟁으로 불린 아프간전이 20년 만에 공식 종료되었다. AP통신에 따르면 중동과 중앙아시아 군사 작전을 책임진 케네스 프랭크 매켄지 중부사령관은 "가슴 아픈 일이 많다. 우리가 빼내고 싶었던 모든 이들을 빼내지 못했다"고 안타까워했다.

지난 며칠 동안의 구출 상황은 1975년 4월 29-30일, 베트남 사이공에 있었던 프리퀀트 윈드 작전(Operation Frequent Wind)을 연상케 했다. 세계 최강인 미국의 체면이 말이 아니었다. 아무튼 전쟁은 이유를 막론하고 인간 사회에서 최고의 비극이다. 이 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나아가 아픈 마음으로 저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탄원해야 해야 한다. 비록 선지자 요나가 니느웨 사역을 감당할 마음이 없었어도 하나님의 눈은 그곳 백성을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이다.

### 1. 일반적인 상황

아프가니스탄(Afghanistan)

은 파미르고원의 남서쪽에 있으며 국토 대부분이 해발고도 1,000m를 넘는 고원에 위치한다. 수도는 카불(Kabul)이며 행정구역은 34개 주(velayat)로 구성되어 있다. 국토는 세계에서 41번째로 넓은 국가로서 652,230 km<sup>2</sup>(한반도의 3

배)이다. 인구는 약 3,700만 명이다. 그 중 가장 큰 종족인 파슈툰인(40%) 이외에 여러 다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식 언어는 다리어와 파슈투어로서 국가 전체에 다중언어 생활이 보편화되어 있다. 아프가니스탄 인구의 99%가 넘는 사람들은 무슬림으로 그 중 90% 정도가 수니파이며, 10%는 시아파이다. 기독교인은 약 0.1% 미만으로 추정한다.

탈레반은 파슈툰족을 기반으로 하는 정교일치주의 단체다. 이는 흔히 다수파인 수니파의 한 분파로 분류하지만 파슈툰족 고유의 토속적 신앙

과 전통 문화가 함께 혼합된 교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스스로를 이슬람 근본주의라고 칭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정통 이슬람과는 거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여성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해 극단적이며 반인륜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

### 2. 아프가니스탄의 근대 이후 역사

아프가니스탄은 1919년 8월 19일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였다. 1970년대 말부터 내전 상태가 고착화된 세계 최빈국이자 후발 개발도상국이다. 이 나라는 반세기 동안 초강대국과 2번 싸우고 내전이 3번 터졌으며 정치체제가 6번 바뀔 정도로 정세가 혼란스러웠다. 아프가니스탄은 주변의 거대 세력들이 각축장으로 삼은 곳이 되었다.

"그레이트 게임(The Great Game)"은 중앙아시아의 패권

파키스탄으로 나뉘게 되었다. 이후 국가로서 아프가니스탄의 소수민족들은 서구 열강들의 패권 전략에 맞서 싸우는 저주의 땅으로 전락했다. 그 과정에서 영국, 러시아(소련) 그리고 21세기에는 미국이 차례로 손을 털고 나갔다. 이로써 아프가니스탄은 제국의 무덤이라고도 불린다.

### 3. 미국과 아프가니스탄의 전쟁

이 전쟁은 미국이 9.11테러의 주범인 알카에다와 오사마 빈 라덴을 지원하는 탈레반 정권을 축출하기 위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함으로써 시작되었다. 그 기간은 2001년 10월 7일부터 2021년 8월 30일까지 장장 20년이나 되었다. 이는 미국 역사상 21세기 최초이자 최장기 전쟁이었다.

전쟁 초기 미국은 탈레반을 축출한 뒤 친미 정권을 세우고 2011년 5월 1일에는 알카

에다의 수장인 오사마 빈라덴을 사살했다. 하지만 미국은 이 전쟁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이해하기 힘든 점은 아프간의 정부군이다. 저들은 미국의 천문학적 지원 속에 병력 수도 30만 명이나 되었다. 헌데 어떻게 7만명의 탈레반 군대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말았는가? 미국의 물자만 빼먹은 오히려 줄이었던 말인가? 결국 미군철수 발표 후 세달 반 동안에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은 힘 한번 못쓰고 모래성처럼 무너졌다.

### 4. 하늘만 바라보아야 할 아프간의 기독교인

이슬람 무장단체인 탈레반은 금년 8월 15일 아프간 수도 카불을 장악했다. 예상보다 빠른 점령으로 현지 기독교인들의 혼란과 염려는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년간 미국의 영향권 아래서 적지 않은 선교사들과 기독교의 NGO 단체들이 그곳에서 봉사를 했다. 저들의 헌신으로 아프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백성들이 생겨났다. 정확

히하면 미군 2,448 명+NATO 동맹군 1,144명+국제구호단체 444명+연론인 72명=총 7,954 명이다. 아프간인은 정부군 66,000명+탈레반군 51,191명+민간인 47,245명=총 164,436 명이다. 이밖에 부상자는 셀 수 없으며 아프간 난민은 500만 명으로 추산한다. 미국은 전비로 2조 달러를 쏟아 부었다.

이슬람 무장단체인 탈레반은 금년 8월 15일 아프간 수도 카불을 장악했다. 예상보다 빠른 점령으로 현지 기독교인들의 혼란과 염려는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년간 미국의 영향권 아래서 적지 않은 선교사들과 기독교의 NGO 단체들이 그곳에서 봉사를 했다. 저들의 헌신으로 아프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백성들이 생겨났다. 정확

한 집계는 알 수 없다.

Open Door 선교회의 통계에 따르면 "3만 명가량의 지하교회 교인들"이 있다고 한다. 문제는 앞으로이다. 한 현 대다수 기독교인들은 급작스런 상황에 여권조차 만들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탈레반의 1차 작업은 기독교인들을 색출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이에 저들 그리스도인들은 국경을 넘거나 아니면 더 깊어 지하로 숨어들어야 한다. 순교의 위험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안타깝게도 그간 아프간에서 사역했던 선교사들은 대

부분이 철수했다. 설사 누군가 위장 신분으로 남아 있다고 해도 현지의 그리스도인들을 돕기란 쉽지 않다.

한국 선교계는 어떠한가? 2007년 샘물교회의 피랍 사태 이후 아프간은 여행금지국가로 지정되었다. 그 이후 외교부의 특별승인 없이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땅으로 변했다. 그렇다면 누가 저들을 도울 수 있던 말인가? 부모가 야기만 낳고 그 이후 "나 몰라라" 한다면 이 얼마나 비정한 짓인가?

### 맺음 말

8월 26일 아프간에서 두 차례 대사직을 역임한 라이언 크로커 전 미국대사는 이날 CNN 인터뷰에서 "미국의 아프간 철군은 이슬람 급진주의자들의 사기를 크게 북돋았다. 아프간에서 일어난 일은 아프간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알카에다, 이슬람국가(IS), 파키스탄 탈레반, 그밖에 무엇이든지, 그들은 승기를 타고 있다"고 말했다.

대사의 언급은 미국이 아프간에서 이렇게 황망히 철수함은 새로운 불씨를 낳게 되었다고 경고한 것이다. 두고 볼 일이다. 하지만 우리는 탈출 상황을 보면서 마음 아프고 뭔가 불길한 예감이 없지 아니했다. 지난 20년간의 전쟁 상황은 어떠한 빛으로 번질 것인가? 그 누구도 예단하기 어렵다. 당장에 저 땅에 남겨진 수많은 부역자들과 기독교로 결심한 현지인들의 운명이 위태롭다. 탈레반 정권의 압제 아래서 여성들의 인권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나아가 3,700만 아프간 백성들에게 누가 여호와 샬롬을 선포할 것인가? 구약의 선지자 요나를 다시 불러올 수는 없지 않는가? 오호통테(嗚呼痛哉)라.

jrson007@hanmail.net

탈레반이란 파슈툰어로서 학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은 주요 종족인 '파슈툰인' (afgān)의 '땅' (stān)이란 뜻이다.

오랜 전쟁으로 피폐된 저 땅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샬롬은 요원하단 말인가?



## 인문학으로 읽는 바울의 생애

### ⑫ 갈라디아 교회들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USA대표)

바울은 선교여행 때 갈라디아 지역을 선교하며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에 거짓 선생들이 침투해서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을 거짓 복음으로 설득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거짓 선생들은 행위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바른 신앙의 진리를 가르치는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회람 문서(Circular documents)입니다.

갈라디아지역에서 유대교 율법주의와 기독교 사이에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바울은 문제의 해결책으로 믿음으로 얻는 자유를 설명합니다. 죄의 형벌과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것은 행함으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그리스도인의 자유 대헌장(Magna Charta of Christian Liberty)"이라고 부릅니다.

갈라디아서는 율법과 죄로부터의 자유의 의미를 가르칩니다.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성령을 좇아 행함(5:16)으로 성령의 열매(5:22)를 맺는 삶이라고 가르칩니다. 또 자유 활용의 지혜를 가르칩니다.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5:13) 하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수신자 문제로 오랜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수신지는 어디일까요? 도대체 바

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며 염두에 두었던 사람들은 누구 일까요? 신학 학자들은 북갈라디아설과 남갈라디아설로 치열한 공방을 이어왔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이해함에 있어서는 수신자들을 규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터키에 살면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지리들을 연구하는 마

크 윌슨(Mark Wilson) 박사는 자신의 저서 "Biblical Turkey"에서 AD 1세기에 갈라디아라 부르는 곳이 두 곳이었다고 합니다. 소아시아 북부지역에 원래 갈라디아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 갈라디아 사람들이 거주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정부가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갈라디아주를 남쪽으로 옮겼습니다. 바울

### 갈라디아서 수신자를 북과 남으로 보는 2가지 견해 있어

#### 믿음으로 구원받는 바른 신앙 진리 가르치는 회람문서

이 1차 여행 후반기에 거쳐간 도시들 즉,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데베 등 갈라디아주의 도시들이었습니다.

북 갈라디아설은 소아시아 북부의 원래의 갈라디아 지방에 갈라디아서가 보내진 것으로 주장합니다. 이들은 갈3:1의 "갈라디아 사람들아!"라고

꾸짖는 말이 켈트족을 일컫는다는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16:6, 18:23에 언급된 갈라디아를 북쪽 갈라디아라고 합니다. 교부들, 중세, 그리고 종교 개혁자들은 북 갈라디아설을 지지했습니다. 그들은 갈라디아서가 소아시아 북부에 있던 고을족 또는 켈트족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졌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북 갈라디아설 주장자 라이트푸트 박사는 '갈라디아'는 '정치적 의미가 아닌 인종적 의미'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를 쓰기 전인 3차 전도여행중인 주후 57-58년경 마게도나 아가야에서 썼다고 합니다. 제임스 모팻은 북 갈라디아설을 주장

하지만 저작 시기는 갈라디아서 1:6에 근거하여 좀 더 이른 53년경으로 봅니다.

남 갈라디아설은 소아시아 남부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이 갈라디아서를 받았다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의 장점은 사도행전 흐름을 따른다는 점입니다. 반면 갈라디아서에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데베 그리고 이고니온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 약점입니다. 남 갈라디아설은 사도행전 16:6과 18:23에 언급된 갈라디아를 남쪽의 갈라디아로 봅니다.

영국 성서 고고학자인 윌리엄 램지(William Ramesy)는 바울의 선교지를 방문해 연구했습니다. 바울의 1차 선교여행에 방문한 도시들 즉,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데베 지역이 갈라디아서 수신지라고 주장합니다. 안디

옥 6세가 바벨론에 살던 유대인들을 강제로 이주시켰던 것을 환기시키면서 갈라디아서 가 율법주의자들을 위한 편지였음을 주장합니다.

윌리엄 램지나 F.F.브루스 등 영국 복음주의 학자들은 남 갈라디아설을 따릅니다. 필자도 남 갈라디아가 수신지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갈라디아

서가 예루살렘공회(행15장) 이전에 기록되었다고 믿고, 북 갈라디아설은 예루살렘공회 후 2차 전도여행 중에 갈라디아서가 기록되었다고 봅니다.

남 갈라디아설을 지지하는 이유는 요세푸스의 주장대로 바벨론에서 이주한 유대인들의 강한 정체성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오랜 바벨론 생활에도 유대인들은 구약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으로 이주하자마자 회당을 짓고 율법을 고수했습니다. 바울의 선교로 예수를 믿었지만 구약의 율법을 포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을 선교하면서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고난(행14:19)을 당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딤후4:11)라며 자신의 고난의 경험을 간증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받고도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을 향해 '왜 천박한 초등학교로 돌아가 다시 종노릇하느냐?(갈4:9)고 도전합니다. 그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갈4:19)라며 온갖 고난을 다시 겪더라도 바른 신앙인을 세우려 한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의 열정이 눈부십니다.

chap1207@hotmail.com



# 매일가정예배

김덕수 목사(하늘소망교회/생터지역인 LA지부장) dsukim@gmail.com

## 월 신앙인가 수단인가(창34:1-29)찬455

야곱의 아들들이 하물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제안했던 것은 '혼인'이 목적이 아니었고, 할례를 받게 한 후에 거동이 불편한 그들을 다 죽이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한편 세겜은 디나를 겁탈한 후에 디나와 결혼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았습니...

위해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도 자신들의 분노를 해결하기 위해 '할례'라는 예식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종교행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소원이 중심이 되는 예배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목적이 되는 예배와 기도를 해야 합니다.

## 화 다시 베델로(창35:1-15)찬524

베델은 예서를 피해서 밧단아람에 살고 있는 외삼촌 라반을 찾아가던 중 노숙을 할 때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족들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창35:5). 베델에 도착한 야곱은 그곳 이름을 '엘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고 축복하셨습니...

다. 인생을 살다가 위기의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인생을 살다가 위기의 순간을 만날 때 우리는 다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송의 자리, 감사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정결한 예배자의 모습(창35:4)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 수 이름을 고쳐서 부르시다(창35:16-22)찬308

라헬이 아들을 낳다가 죽습니다. 라헬은 그 아이의 이름을 베노니(슬픔의 아들)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아이의 이름을 베나민(오른손의 아들)으로 고쳐서 불렀습니다. 야곱은 상황과 환경을 기준으로 베나민의 가치를 규정하지 않았습니...

의미는 대부분 생명, 축복, 영광, 구원 등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하신 영혼의 가치로 여겨야 합니다. 소유의 많고 적음, 배움의 정도 등을 기준으로 베노니라고 부르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는 눈으로 우리도 그들을 바라봅시다.

## 목 꿈꾸는 요셉(창37:1-36)찬214

야곱은 편애가 증대한 역기능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은 예서를 편애했고 그의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했습니다. 그렇게 자란 야곱도 편애합니다. 라헬에게서 얻은 요셉을 편애합니다(창37:3). 요셉이 곡식단 열한 개가 자신의 곡식단에 절하는 꿈, 해와 달과 열한 별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에 대해 형제들에게 말하고 형들은 요셉...

을 팔았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보디발 집으로 팔려갔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큰 계획은 요셉을 통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 경험되는 일들도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 금 유다 이야기 속 구원 이야기(창38:1-30)찬548

요셉을 죽이지 말고 상인들에게 팔자고 제안했던 유다는 가나안 사람과 결혼해 세 아들을 낳았지만 둘은 죽고 유다는 그 아들을 잃고 싶지 않아 다말에게 셀라를 주지 않았습니...

낳게 됩니다.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과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유다지파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고 오시는 이유는 유다와 같은 죄인들의 죄(세라-바위)를 파괴(베레스)하기 위함입니다. 유다와 같은 죄인인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유다)합니다.

## 토 임마누엘이 행동입니다(창39:1-23)찬384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간 요셉은 성실히 일했지만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침으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서도 성실하게 일합니다. 성경은 요셉이 행동했다(창39:23)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요셉은 행동한 사람이 아닙니다. 행동하다면 형제들에게 살해의 위협을 받으면 안 됩니다. 행동하다면 타국에 노예로 팔리면 안 됩니다. 행동하다면 누...

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행동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행동한 사람이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창39:2,3,21,23)입니다. 임마누엘과 형통은 늘 한 구절 속에서 함께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는 행동한 사람들입니다.



## 포스트 코비드 시대 사역의 변화에 따른 교회 예배와 음악 (13)

### III. 종교개혁 시대 예배를 통해서 본 예배와 음악

#### 2. 오늘날 교회 예배에 주는 도전들

종교개혁은 개신교 교회사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이다. 이 종교개혁의 본질적인 의도중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하여야 할 예배를 바른 예배로 회복시키려 한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의 예배와 음악은 개혁자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변화되고 표현되고 있다. 특히 근대에 들어서 그 변질의 속도는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종교개혁자들이 오늘날 교회의 예배와 음악에 대해 던져주고자 함직한 메시지를 예배음악에 집중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 윤임상 교수

(월드미션대학교대학원)



럽게 수용하게 된 것이다.

칼빈도 루터와 마찬가지로 예전에서 음악을 중요한 위치로 놓았다. 하지만 중세교회 예배에서의 음악의 오용을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하여 당시의 음악을 세속화 되고 부패한 교회의 음악이라 단정 짓고 거부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당시 유행되고 있는 모든 다성음악과 악기를 거부하고 단선율의 음악만 주장하게 된 것이다.

1539년 처음으로 22편의 시편 찬양을 목은 스트라스부르크 시편(Strasbourg Psalter)을 시작으로 23년이 지난 1562년 시편 150편을 모두 묶어 제네바 시편가(Genevan Psalter)를 만들어 이것을 예배에서 유일한 찬양으로 사용하게 된 것이다.

이 안에 내포된 칼빈의 마음을 살펴보면 찬양은 전심을 다해 오직 마음으로 찬양해야 하고 외형적으

### 조기교육의 핵심은 인격, 신앙, 가치관 등 기본 교육 공립학교 크리스천 교사는 선교사, 상담가, 비저너리

히 세워 완성한 인물은 칼빈(John Calvin, 1509-1564)이라 말할 수 있다. 만약 칼빈이나 다른 개혁자가 종교개혁의 선두에 섰고 마틴 루터가 그 뒤를 따랐다면 당시의 종교개혁은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라 감히 필자는 생각한다. 그것은 바로 음악을 통해 개혁의 메시지를 빠르게 회중들에게 알리게 된 음악의 작용력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음악이란 여러 예술행위 중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가장 빠르게 주입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이다.

마틴 루터는 신학과 음악을 거의 대등한 위치에 놓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의 예전에 음악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신학자 로빈 리버(Robin A Leaver 1939-)는 그의 책 Luter's 'Liturgical Music'에서 '음악이 신학 다음'이라는 루터의 말은 단지 수사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음악이 신학과 거의 동일한 효과를 일으킨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로빈이 주장한대로 중세시대에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을 음악의 주된 기능으로 생각했지만 마틴 루터는 음악을 이러한 기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기능으로도 여기게 되었다는 말이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이처럼 루터는 그의 신학사상에서, 그리고 그의 예전에서 음악의 대중성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중세교회의 예배전통에서 계승된 여러 부분의 음악을 그대로 수용하는 유연성을 보이게 된 것이다. 이것은 자유와 책임이라는 역설적 통합을 주장하며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는 음악이라면 자연스

로 부르는 노래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하게 주장한다. 즉 음악적 멜로디에 신경을 쓰기보다 가사에 깊은 영적의미를 담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어거스틴(Aurelius Augustine, 354-430)의 입장과 같은 맥락으로 그는 가사의 내용보다 음악에 끌려가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것이 결국 칼빈으로 하여금 귀만을 즐겁게 하려는 매혹적인 예술음악들을 거부하고 단선율의 음악을 사용, 음악의 단순함을 꾀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종교개혁의 핵심인 루터와 칼빈, 이 두 개혁자들은 음악의 사용면에서 사뭇 다르게 접근하였고 그들의 교회음악 철학 또한 극명하게 달라 보였다. 하지만 본질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찬양의 관점에서 볼 때, 결국 같은 길이었음을 알게 된다. 이들이 오늘의 예배음악을 보면서 현대 예배자들에게 조언하고 충고하고 싶은 것들을 서술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예배에서 찬양을 하나의 옵션이나 악세사리로 생각하지 말라. 우리의 예배 속에 드러지는 찬양이 교회의 상황에 따라 삭제되거나 혹 설교자의 설교를 잘하게 하기 위한 악세사리로 인식되어서는 안된다. 목회자의 설교가 중요한 것처럼 찬양 또한 옵션이 아니라 필수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어찌 보면 찬양이 때로는 한편의 설교보다 더 큰 힘을 지니기도 한다.

오늘날 코로나 팬데믹이 주는 재난 속에 예배에서의 음악은 설 자리를 더 많이 잃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된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 없이 설교만으로 예배를 구성하기도 하고,

(15면으로 계속)



"사람은 기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합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모든지역 - 대형 파랑장 준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워싱턴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제 6회 PGM 선교사집중훈련이 화상으로 진행됐다.

### 23Unit 29명 참여, 6unit 8명 선교사파송

#### 2021년 제6회PGM선교사집중훈련마쳐

PGM선교회가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0일까지 제6회 PGM 선교사집중훈련을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PGM 선교사집중훈련의 목적은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구체적인 헌신을 기다리는 선교 헌신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복음의 전문인으로 파송하는 것이다.

이번 훈련에는 영국, 과테말라, 한국, 키르기스스탄, 미주지역(뉴욕, 펜실베이니아, 조지아, 캘리포니아, 뉴저지, 매사추세츠, 일리노이)에서 23 Unit 29명의 훈련생들이 참여했다. 이중 17 Unit 21명은 8월 23일-9월 3일 1차 훈련을 수료했으며, 6unit 8명은 9월 7일-9월 10일 진행된 2차 파송훈련을 마치고 PGM 선교사로 파송됐다.

지금까지 6회에 걸친 PGM 선교사집중훈련을 통해 총 91명이 PGM 선교사를 파송되고 48명의 수료자가 배출됐다.

이번 집중훈련은 개회예배를 시작으로 3주간 진행됐다. 호성기

목사(국제대표)는 '선교사시기에 선교합니다'(벤전2:9)라는 제목의 개회예배 설교에서, "선교를 하기 때문에 선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택함 받고 구원받아 존재론적으로 선교사라는 정체성을 가졌기에 선교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이후 본격적인 훈련으로 26명의 PGM 전문 감사진들이 이론과 선교사례를 생동감 있게 훈련생들에게 전달했다.

1차 훈련에서는 선교의 제4물결, PGM 7대 핵심가치(성령충만 중심, 디아스포라중심, Here & Now중심, 전문인중심, 지역교회중심, 지역교회설립중심, 땅끝중심), 8개의 선교사례(난민선교, 다민족교회, 전문인선교, 지역교회 선교실제, City Church, 웨일즈선교 1-2, 지역교회 차세대 선교, 스페니스사역), 선교사의 경건훈련, 타문화권전도, 팬데믹 시대 온라인 선교가 진행됐고, 2차

훈련에는 선교사의 정체성, 인도네시아선교, 선교지 전도전략, 도심선교, 영적전쟁, 내적치유, 선교사 행정훈련으로 진행됐다.

작년과 동일하게 수요일만 영상자료로 대체하고, 3주간 오후 7시-10시까지(미동부시간) Zoom으로 훈련을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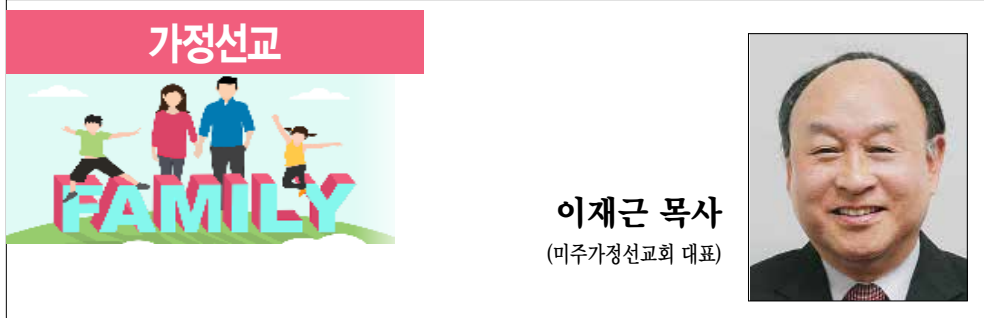
훈련생들은 삶의 현장 속에서 생활하면서 밤늦게까지 훈련을 받아야 되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훈련생 96%가 매 강의마다 새로운 사실을 깨닫고 도전을 받는 유익한 시간이었고, 100%가 추후 실시되는 PGM 선교훈련에 지인들에게 추천할 의사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나눔의 시간에는 모든 훈련생들이 강의를 듣고 은혜를 받는 것에 끝나지 않고 구체적인 결단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선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역보다 먼저 성령충만 해야 된다 △선교는 큰 결단을 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존재론적 전문인 선교사라는 정체성을 가졌다 △삶의 현장인 Here & Now에서 유학생, 다민족, 자녀, 이웃, 직장, 교회 내에서 복음의 전문인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했다.

PGM 선교회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과 뜻을 좇아 교회의 본질인 선교적 교회로의 회복을 돕고, 교회내 평신도들을 깨워 훈련함으로 마지막 때에 선교의 동력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제공: PGM)



이재근 목사 (미주가정선교회 대표)

## 40.가정선교는 가정과 교회의 협력으로 완성된다

가정선교는 말세기적 사탄의 가정 파괴 공작에 대한 최선의 방비책이며, 만연한 가정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시대적 요구이며, 가족 구원과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이 최대 관심사입니다. 가정선교는 온전한 부부관계에서 시작되지만 온전한 부부관계만으로는 부족하며, 가정과 교회가 협력해야 완성이 됩니다.

스테이플스(Leon Smith & Edward D. Staples)는 그들의 저서 "교회를 통한 가정 사역(Family Ministry through the Church)"에서 교회는 모든 가족들이 삶의 주기를 통하여 기독교 가정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교회가 책임지고 수행해야 할 여섯 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에 대한 훈련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협력해야 할 방향에 대하여 찰스 셀(Charles M. Sell)은 그의 저서, "가정사역(Family Ministry)"에서 세 가지 협력방안을 제시했습니다. (1) 부모교육과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이 가정생활에 참여하도록 훈련시켜야 한다. 셀은 이것을 "가정생활 교육(Family - Life Education)"이라고 했다. (2) 가정양육(Family Nurture)이 있어야 한다. (3) 가정단위사역(Family - Unit Ministries)이 있어야 한다.

### 1. 가정과 교회의 본질적 관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직접 만드신 두 기관이 있는데 곧

(1)교회는 기독교 가정생활의 중요성을 인정해야 한다. (2)교회는 가족들이 살고 있는 문화를 이해해야 한다. (3)교회는 가족의 전

### 가정을 위한 교회 프로그램 3가지 원리:

- (1)성경적 (2)동일한 신학적 배경 (3)시대적 상황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

가정과 교회입니다. 흔히 가정과 교회를 서로 분리된 독립기관으로 보지만, 기독교 가정은 교회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더욱이 교회의 본질과 선교는 기독교 가정을 통하여 실현되고, 신앙공동체로서의 교회는 가정 안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가정과 교회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로 역동적인 상호보완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체적인 삶의 주기를 통하여 기독교 가정생활의 전 영역에서 가정을 도와야 한다. (4)교회가 가정에게 기독교 양육의 기능을 이행하도록 가족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 (5)교회는 가족들로 하여금 교회생활의 전 영역에 참여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야 한다. (6)교회는 가족들이 세상에서 교회의 역할을 다하도록 도와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가정과 교회를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작은 교회인 가정과 큰 가정인 교회가 서로 교류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4. 가정을 위한 교회의 프로그램

교회가 감당해야 할 프로그램이 다양하지만 가정을 위하여 개발해야 할 프로그램의 영역도 매우 넓습니다. 가정을 위한 교회의 프로그램은 교회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프로그램에 대한 분명한 원리가 수립되고 이것을 가정과 교회의 교육현장에 적용되는 것이 시급합니다.

가정을 위한 교회의 프로그램에 대한 세 가지 원리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1)성경적이어야 한다. (2)가정과 교회가 동일한 신학적 배경을 가져야 한다. (3)시대적 상황을 고려한 교회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jaekunlee00@hotmail.com (562)714-0691

### 3. 가정과 교회의 협력적 방향 모색

교회의 각종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교회중심으로 편성되어 가정생활을 소홀히 하거나 해를 끼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정생활이 교회로 인하여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에 세우신 기관으로서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교회는 가정을 통하여 자녀교육, 부모역할,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

### 2. 교회와 가정생활

레온 스미드와 에드워드

### 3. 가정과 교회의 협력적 방향 모색

교회의 각종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교회중심으로 편성되어 가정생활을 소홀히 하거나 해를 끼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정생활이 교회로 인하여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에 세우신 기관으로서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교회는 가정을 통하여 자녀교육, 부모역할,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

### 2. 교회와 가정생활

레온 스미드와 에드워드

### 포스트 코로나...

(14면에서 계속)

찬양은 간신히 집어넣되 아주 규모를 축소해서 사용하거나, 또 얼마 전까지는 찬양대의 찬양이 없었던 관계로 아예 그 찬양시간을 삭제해버린 교회들도 많이 보게 된다. 이 같은 현상은 코비드 팬데믹의 비상 상황에서 예배가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변화되면서 찬양을 없애거나 축소하는 경향으로 나타나는 일시적인 일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교회들이 규모를 조정해서라도 꼭 찬양의 시간을 갖게 하여야 한다. 찬양은 예배를 구성함에 있어 옵션이 아니고 필수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예배에서의 찬양이 공연예술(Entertainment)이 되지 않게 하라. 오늘날 예배에서의 경배 찬양, 찬양대의 찬양이 취급되는 공연 예술 문화로 점점 더 취급되어간다. 이로 인해 온갖 엔터테인먼트에 사용되는 장비와 악기들을 더 동원해서 화려함과 더 좋은 영

상, 더 좋은 소리를 만들어 회중들을 현혹시키려 한다. 이에 회중들은 그것으로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것이 아닌 찬양 연주를 다른 교회 혹은 찬양연주단체와 비교해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자리로 만들게 한다.

공연장과 예배 현장에서 표현되어지는 음악의 대상과 그 의미는 분명히 다른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공연장에서 음악 연주의 대상은 관중이고 그들에게 미적 요소와 감동을 주는 것이 전부이다. 하지만 예배에서 음악 연주의 대상은 하나님이다. 음악은 단순한 기능일 뿐이고 미를 표현하려는 것은 하나의 요소이다. 목적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존귀케 하는 연주(Performance)가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삼위 하나님만 축복하는 찬양을 만드는 기능인이 아닌 예배자가 되라.

오늘날 찬양의 내용에는 복음을 말하면서 또 경배를 말하면서 그 안에는 미묘하고 복잡하게 내가 담겨져 결국은 내가 되는 경우

를 자주 보게 된다. 그냥 단순하게 복음, 그리고 삼위 하나님에 대한 가사를 가지고 내가 아닌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는 찬양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이처럼 종교개혁자들이 오늘날 개신교 교회음악의 현실을 보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충고하고 싶은 세 가지 조언을 종합해보면 세 개의 주의(ism)로 요약할 수 있다. 즉, 합리주의(Rationalism)와 심미주의(Asceticism) 그리고 다른 하나는 실용주의(Pragmatism)이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에 결코 합당하지 못한 요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뀌어야 한다!

iyoon@wmu.edu

[정정: 본지 1841호 14면에 게재됐던 "포스트 코비드 시대 사역의 변화에 따른 교회 예배와 음악"의 원고가 반복 게재(10회분)됐으므로 이에 정정합니다.]



# GRACE THEOLOGICAL SEMINARY

- 1. 84년 역사와 전통을 지닌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보수적인 복음주의 신학교(ATS정회원)
- 3.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나 수강할 수 있는 100% 온라인 프로그램
- 4. 선교지 신학교나 현지 대학교에서 강의 가능한 학위 프로그램
- 5. FAFSA(연방정부 장학금) 지원 가능(영주권자 이상) 및 각종 장학금 제도

### 모집과정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 목회학 박사과정(D.Min) + 목회전공 + 선교전공

### 2021년 가을학기 온라인 강의 일정

8월 23일-10월 17일  
DI8530 Biblical Theology of World Mission (세계선교의 성경신학)

10월 18일-12월 18일  
DI8160 Church Planting & Growth (교회 개척과 성장학)

한국어로 취득할 수 있는 ATS승인 100% 온라인 박사학위과정입니다.

##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seminary.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E-mail: gtskoreanstudies@grace.edu  
대표전화: 574-372-5100 (ex 6335), 574-334-7980(한국어)



# 복음적인 영혼의 분열시대, 그러나 다시 하나 되어!

## CT, 티모시 달림플 대표의 미국 복음주의 분열원인과 하나 되는 영향력 발휘 게재



"미국 복음주의 내의 한 단체는 우리의 종교적 자유가 이보다 더 확고하게 확립된 적이 없다고 믿고 있고, 또 다른 단체는 이보다 더 큰 위험에 처한 적이 없다고 믿고 있다. 한 단체는 인종차별이 미국 사회에서 여전히 조직적이라고 믿는다. 다른 한쪽은 조직적 인종차별을 강조하는 것이 성난 급진주의자들에게 부와 권력을 재분배하기 위한 진보적인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한다. 또 한쪽은 국회의사당에서 일어난 폭동에 더 관심이 있고 다른 한쪽은 조지 플로이드의 살해사건에 이은 폭동에 관심이 있다. 어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치가 기독교인들에게 세대적으로 피해를 줬다고 믿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그것은 굉장히 유익했다고 믿는다. 하나는 전 대통령이 쿠데타를 시도

했다고 믿고, 다른 하나는 민주당이 선거를 가로챘다고 믿는다. 한쪽은 마스크와 백신은 기독교인의 사랑 표시이고, 한쪽은 백신과 마스크에 대한 거부가 기독교인의 용기를 보여주는 표시라고 믿는 사람도 있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왜 갑자기 이렇게 갈라지게 됐을까? 이 질문에 대해 크리스처니티투데이(Christianity Today) 대표 티모시 달림플(Timothy Dalrymple)의 평가(The Splintering of the Evangelical Soul: Why we're coming apart, and how we might come together again)를 살펴본다.

고 서로 적대감이 많은 여러 정보 세계를 점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말하고 있는 '복음주의 영혼의 분열'을 만들었다.

다시, 달림플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의 세 가지 출처에서 나온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1)우리의 미디어 소비에 온전한 정신을 발휘하고 2)신뢰할 수 있는 리더십을 다시 세우고 3)'공통적인 혐오의 공동체'로 후퇴하기보다는 교회는 공동 사랑의 공동체를 제공해야 한다.

오늘날 복음주의에는 왜 이렇게 '분열'이 많이 일어나는 것일까?

물론, 그것은 달림플이 말하는 "복음적인 영혼의 분열"에 대한 적절한 묘사다. 하지만 오늘날 그 분열이 왜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는가? 그는 타당성 곡선과 정보 곡선이라는 두 가지 역할에 대하여 말한다.

당성 곡선을 완전히 벗어난 주장은 특정 시점에 개인이 믿을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이며, 증거나 논리가 충분하지 않다."

이것으로부터 주어진 주장의 타당성을 결정하는 것은 "개인 이 경험하고, 이미 믿고, 믿고 싶어 하는 것에 얼마나 잘 부합하느냐"이다. 우리가 믿고 싶지 않은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

이 나타나게 된다고 말한다.

"타당성 곡선 위에 있는 거울 이미지 그릇을 상상해 보라. 이것은 정보 곡선이며, 커뮤니티, 당국 및 미디어와 같은 세계에 대한 개인의 외부 정보 출처를 나타낸다. 정보 곡선의 중심에 있는 그러한 출처들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러한 출처로부터 나온 주장은

그는 정보 곡선의 중심이 일반적으로 타당성 곡선의 중심과 정렬될 것이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 타당성 곡선과 정보 곡선의 관계는 "상호강화"다.

"출처는 우리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주장을 제공할 때 더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주장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나올 때 더 타당하

첫째, 타당성 곡선이다. 달림플은 "상상을 해보라, 그릇처럼 아래쪽으로 구부러진 수평면이 다시 올라가서 수평면으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그릇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의 곡선은 개인이 믿을만한 주장의 범위를 나타낸다. 그것을 타당성 곡선이라고 하자. 곡선의 중심에 속하는 주장은 가장 그럴듯한 것으로 인식된다. 개인이 믿는 것에 동의하기 전에 증거나 주장이 거의 필요하지 않다. 변두리 근처에서 나타나는 주장은 중심에서 벗어나면서 점점 더 설득력이 필요하므로 점점 타당성이 떨어진다. 타

### 정보 곡선을 공통의 중심으로 이동하면 타당성 곡선 뒤따라

- 1)미디어 소비에 온전한 정신 발휘
- 2)신뢰 리더십 다시 세우기
- 3)공통적 사랑의 공동체 제공

리가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설득을 해야 할 것이라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개인 타당성 곡선은 시간과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으며, 내가 그럴듯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누구에게는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는 것도 당연하다.

그는 이 부분에서 정보 곡선

거의 의심의 여지없이 받아들여진다. 그릇의 바깥쪽 끝에 있는 정보의 출처는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므로 그들의 주장은 더 많은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곡선을 벗어난 출처는 적어도 해당 개인에게 있어서 신뢰성이 부족하여 그들의 주장이 기각된다."

고 간주한다."고 그는 말한다.

우리는 함께 "정보 세계"를 공유하고 있다. 달림플은 정보 세계는 "개인 또는 개인 커뮤니티가 정보를 수신하고 처리하는 방식을 포괄한다"라고 말한다. "정보 세계마다 사실과 출처가 다를 것이다. 오늘날 도전받는 점은 우리가 공통점은 거의 없

"이전에 복음주의자로 구별되지 않았던 그룹이 함께 모여서 '복음주의'라는 범주를 신학적 용어보다는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용어로 정의함에 따라 이러한 공통성의 감각은 점점 더 긴장되고 어려워졌다. 오늘날 이 광범위한 복음주의의 운동은 여전히 어느 정도 도덕적, 신학적 약속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지만, 정보 출처와 세계를 바라보는 넓은 시각에서는 매우 다른 별개의 사회로 나뉘고 있다. 그들의 정보 세계는 거의 겹치지 않는다. 그들은 고통스럽고 격양된 의견 충돌에 빠지지 않으려 하는 경우에 한에서만 아주 좁은 범위의 주제에 대해 논의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복음주의의 분열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정보 곡선을 공통의 중심으로 이동"해야 한다. 그러면 "타당성 곡선"이 뒤따를 것이다. 그리고 정보는 미디어, 당국, 커뮤니티

달림플은 결론을 내린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정보 세계들에 다리를 놓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우리는 세계를 균형 있게 바라보고 그것에 대해 관대한 대화를 제공하는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를 육성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우리는 유명함보다 겸손함, 영향력보다 청렴함에 의해 규정되는 리더십 문화를 복원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우리는 그들의 정치적 파벌에서 가짜 공동체를 발견한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리스도에 있는 더 부유하고 강력한 공동체를 재발견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와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공유된 이해를 재건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다."

### 책 소개

#### 'The Ground of Holy Life' (거룩한 삶의 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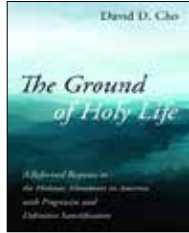
저자 조대준 목사

조대준 목사(Reformed Presbyterian University & Seminary 교수, Ph.D)가 영문서적 'The Ground of Holy Life'(거룩한 삶의 근원)를 출간했다.

A Reformed Response to the Holiness Movement in America with Progressive and Definitive Sanctification(미국의 성결/거룩 운동에 대한 개혁주의의 점진적 성화와 결정적 성화로써의 신학적 반응)란 부제를 달고 있는 본서는 프로테스탄트교회 구원론과 성화론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종교개혁 이후의 칭의론과 성화론의 관계를 보여주

며 기독교 신학의 구원론에서 결정적 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저자는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왜 삶에서는 성화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지난 40년 동안 신학을 공부하고 사역을 하면서 끊임없는 해 오고, 씨름을 해 오는 신학적이면서 실질적인 문제"였다고 말하며 "먼저 이 문제의 근원을 발견



하고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해야 할 일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이 능력 있는 성화의 삶을 살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을 꿈꿔왔다"고 말한다.

또한 "이 책은 이런 성화론의 문제에 대해 먼저 신학적인 문제를 찾아내고 이것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책으로, 이 원인은 마틴 루터가 계획하지 않았지만 칭의론을 일방적으로 강조한 종교개혁으로 올라가고, 그 후에 일어난 독일의 경건주의, 웨슬리의 완전주의 등의 경건주의와 신학운동들은 그 동안 가려졌던 성화론을 칭의론과 같은 평등의 교리로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운동들

은 비성경적인 알미니안이나 펠라기우스 신학으로 인본주의적 결과를 낳고 말았고 여기에 대한 개혁주의의 해답은 1960년대에 제안한 존 머레이의 결정적 성화에서 찾을 수 있다. 거룩은 삶의 목적보다는 삶의 방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본서는 제1장 'The Hole In Protestant Theology'(프로테스

미국 완전주의에 대한 벤자민 워필드의 신학적 반응), 제4장 'Other Reformed Theologians' Response to Perfectionism'(완전주의에 대한 다른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신학적 반응), 제5장 'Keswick's View of the Victorious Christian Life'(케직의 크리스천의 승리의 삶에 대한 가르침), 제6장 'John Murray's Response to

교), 제8장 'Definitive Sanctification in Salvation of Man'(인간의 구원 안의 결정적 성화), 제9장 'The Duplex Gratia in the Protestant Church'(프로테스탄트교회의 이중은혜)으로 구성돼 평신도들을 위한 책이라고보다는 신학도와 사역자를 위한 아카데미 북이다.

앞으로 저자 조대준 목사는 이 책이 제시하는 원리들에 근거해 평신도들에게 맞고, 평신도들의 성화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책을 출간하고 싶은 꿈을 꾸고 있다.

본서의 구입은 amazon.com과 barnesandnoble.com 등 인터넷 서점에서 가능하고 저자 연락처는 davidcho227@gmail.com이다.

(이성자 기자)

### 종교개혁 이후 칭의론과 성화론 관계에 집중

탄트 신학의 구명), 제2장 'Historical and Theological Background of the Holiness Movement in America'(미국 성결운동의 역사적이고 신학적인 배경), 제3장 'Benjamin Warfield's Response to American Perfectionism'(

Keswick's Sanctification'(존 머레이의 케직 성화론에 대한 신학적 반응), 제7장 'Comparison of Keswick's Sanctification and John Murray's Definitive Sanctification'(케직 성화론과 존 머레이의 결정적 성화론의 비

# 세계선교교회 창립 48주년 감사 예배

지난 48년간 은혜로 돌보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앞으로도 한 걸음씩 선하게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를 올려 드립니다.



일시: 2021년 9월 26일(주일) 오전 8시, 11시  
장소: 세계선교교회 본당 (927 S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엡 2:21-22)



세계선교교회 예배 시간  
주일예배: 1부 8AM, 2부(EM) 9:30AM, 3부 11AM  
중고등부 예배: 11AM  
초등부 예배: 11AM  
온라인 새벽기도회: 월-토요일 6AM  
수요 온라인 성경공부: 매주 수요일 7PM, zoom

